

보육활동의 결집이

우리네 아이들

97.12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시 중구 동소문로 38-48 여성평화의 집 3층 (주) 100-691 ☎ 02) 275-8505 ~ 6 FAX: 275-8506 KOTA (관리인)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님, 부유하거나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있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못버릴 걱정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12

우리네 아이들

97.12월호

<통권 56호>

<표지사진>

아이들이 웃고 있다.
저마다 뛰라고 큰 소리로 하
늘을 위협한다.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까.
모든 것에 자신있는 아이들
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시
있고 지낸 경의를 배우고 용
기를 배우고 진실을 배운다.
(사진 : 진주 들꽃어린이집)

일하며 생각하며 / 4

희망찬 미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남미영

기획(1) / 6

'97 정기국회에서 보육과 관련되어 개정된 내용

- 보육시설 이용자도 세제감면이 적용되다
- 5세아 무상교육의 출발

기획(2) / 11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기획(3) / 14

'대통령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의 주요쟁점 여성신문사

건의문 / 17

유아교육제제 개혁과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한 건의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보육교사회

다녀와서(1) / 20

'유아교육 정책토론회'를 다녀와서...

박금희

보육의 질 / 23

보육교사와 함께 개발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보육프로그램

윤선영

다녀와서(2) / 43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7 추계학술대회 참관기

임남희

어린이와 환경 / 45

'어린이와 환경' 국제학술대회 참가기

조인숙

어린이건강 / 50

어린이 설사와 경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그 / 59

중간간부 훈련을 다녀와서

이경녀

62 / 교통교육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시민교통환경센터, YMCA녹번종합사회복지관

72 / 소모임 소개

지연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싶다'

74 / 연장교육

유은성

자유놀이

76 / 연장소식

유지민

잊을 수 없는 열린 강좌

최용경

놀이사랑분과 강습회를 끝내고...

80 / 좋은 그림책 소개

오윤정

저런 별거송이네

82 / 탁아소별곡

황호정

우리 아이들의 나라, 우리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84 / 고사의 의견

전경숙

아이들은 바깥놀이 시설이 필요하다

85 / 육아일기

이선홍

유빈이는 김치 좋아해

87 / 세상일기

위양자

또 다시 희망을 품으며...

89 / 오사카에서 온 소식

변미양

12월, 오사카에서 맞이하는 첫아기

91 / 우리들의 목소리

조선미, 유주연

93 / 보육계 풍향

95 / 소식과 소식

99 / 편집부에서

짜·임·새

1997년 12월호(통권 56호)/첫발행 1992년 5월25일/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남미영/목은이 박정애, 이선주, 황미혜/펴낸날 1997년 12월4일

일하며 생각하며

.....

희망찬 미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남미영 · 본회 회장

지난 7월말 보육교사회가 깃발을 올린 후 5개월이 지났다.

뒤를 돌아본다.

누구든 이즈음이 되면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며, 아쉬움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희망 등으로 앞날을 그려보는 때이다.

우리가 돌아보는 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마음을 가다듬으며 생각해본다.

우리는 보육교사회를 만들고 97년 하반기를 조직을 정비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준비기로 바라보았다.

전국의 3만명이 넘는 보육교사수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200명 정도의 회원이지만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다. 각 지부도 역량이 되는 만큼 준비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었나?

서로를 알기를 희망하고 노력했으며 조직의 발전을 위해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던가 항상 고민하는 자세였다.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애정을 가지게 되고 우린 그것이 힘임을 자부할 수 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던 기간이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합리화 해버리고 싶었던 욕구 또한 부인할 수 없다.

97년을 한달 남겨둔 지금, 뒤를 돌아다보며 얻은 교훈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조직이면 조직을, 개인이면 개인을 바르게 보고 객관화할 수 있는 현명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물론 사업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서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옆에 있는 동료는 어떠한지, 내가 속한 지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보육교사회의 현재는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98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98년이라는 흰색 도화지가 그림이 그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흰색, 검정색, 녹색, 빨강색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심호흡을 하자.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보는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얼마나 힘고, 그것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던지...』

97년을 한달 남겨둔 지금, 뒤를 돌아다보며 얻은 교훈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획(1)

'97 정기국회에서 보육과 관련되어 개정된 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본회를 비롯하여 법 보육계의 활동의 성과가 여겨지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과 관련한 글은 신낙균의원이 국회에 청원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 이용자도 세제감면이 적용되다

1. 特別消費稅法中 改正法律案

*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현행 特別消費稅法에 의하면 피아노, 교재용 표본 및 참고품, 영사기와 활영기 등을 學校나 幼稚園의 教育用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嬰幼兒保育法에 의하여 설립되는 保育施設의 경우 保育機能 이외에 教育機能도 함께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教育用 教材의 구입시 稅制상의 支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동법안 保育施設兒童의 保育條件의 改善와 保育水準의 向上을 위하여 保育施設에 대하여도 教育用으로 피아노, 교재용 표본 및 참고품, 영사기와 활영기를 구입하는 경우 特別消費稅를 免除하도록 하는 것임.

* 特別消費稅法中 改正法律案

特別消費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8號 중 "學校"를 "保育施設·學校"로 하고 同條同項 第16號 및 第17號중 "學校 教育用"을 각각 "保育施設 및 學校 教育用"으로 한다.

* 附則

① (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條件附免除의 適用例) 第18條第1項의 改正規程은 이 법 施行후 최초로 課稅對象物品을 販賣場에서 販賣하거나 製造場에서 搬出 또는 유입申告를 하고 分부터 適用한다.

③ (一般的 經過措置)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規程에 의하여 초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特別消費稅에 관하여 종전의 規程에 의한다.

新舊條文 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第18條 (條件附 免稅) ①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物品에 대하여서는 大統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	第 18條 (條件附免稅) ①.....
1-7 (생략)	1-7 (現行과 같음)
8. 學校, 博物館, 物品陳列所 등에 陳列하거나 教材用으로 使用하기 위한 標本 또는 參考品	8. 保育施設·學校.....
9-15 (생략)	9-15 (現行과 같음)
16. 피아노(電子오르간을 포함한다)로서 學校 教育用 또는 宗教儀式用的 것	16. 保育施設 및 學校教育用.....
17. 映寫機의 攝影機(高級 寫眞機를 포함한다)로서 放送, 新聞, 送信用 또는 學校教育用的 것	17. 保育施設 및 學校教育用.....
②-④ (생략)	②-④ (現行과 같음)

2. 所得稅法中 改正法律案

*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嬰幼兒保育法상의 保育施設은 保育과 教育을 통합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6세 이하의 아동을 둔 保護者의 保育料 부담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嬰幼兒의 保護者에 대하여는 幼稚園의 경우와는 달리 稅制支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동 법안은 嬰幼兒 保護者의 保育料 부담을 감소시키고 幼稚園과 保育施設 兒童에 대한 租稅支援상의 均等性을 제고하여 영유아교육의 健全性 확보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保育施設 아동의 保育料에 대해서도 幼稚園 兒童과 동일하게 년70만원까지 特別控除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 所得稅法中 改正法律案

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11項第4號중 “學生(大學院生을 제외한다)으로서”는 “學生(大學院生을 제외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保育施設의 兒童으로서”로 하고 “入學金, 授業料 기타 공과금”을 “入學金・授業料・保育料 기타 공과금”으로 하며 “幼稚園兒인 경우에는”을 “幼稚園兒 및 保育施設 아동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 附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特別控除에 대한 適用例) 第52條第11項第4號중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適用한다.

新舊條文 對比表

現行	改正案
第52條 特別控除 ①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用 勞動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帯主에 한한다)가 당해 年度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各號에 規定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1-3(생략) 4. 教育法에 의한 學校 및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學校의 學生(大學院生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入學金, 授業料, 保育料 기타 공과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第12條第4號 사目に 規定하는 學資金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금액을 控除額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大學生인 경우는 1인당 년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幼稚園兒인 경우 1인당 70만원을 하도록 한다. 가-나(생략) 5-6(생략)	第52條 特別控除 ① 1-3 (현행과 같음) 4. 學生(大學院生을 제외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상의 保育施設 兒童으로서 入學金, 授業料, 保育料 기타 공과금. 幼稚園兒 및 保育施設兒童인 경우에는 가-나 (현행과 같음) 5-6 (현행과 같음)

5세아 무상교육의 출발...

정희연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

지난 7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안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무상으로 취학전 1년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아동에 부여되어 있는 권리인 무상교육의 권리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유치원보다 저소득층의 아동이 많은 보육시설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는데 지난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도 취학전 1년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5세아 무상교육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안은 10월 27일 김홍신, 신낙균, 추미애의원의 18인의 발의와 11월 6일 오양순, 김명섭의원의 2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안심의 소위원회는 이 두 법률안을 통합·조정, 단일안을 마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2항에 “①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무상교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육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현행	개정안
제21조(비용의 부담) 2항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 2항 ①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무상교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육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보육관련법 변화된 내용 정리)

1. 소득세법 개정안(제52조 제1항의 4)과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제18조 제1항) 통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감면이 가능하며 소득공제액은 70만원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185대 국회에서 국민회의 신낙균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11월1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11월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어 보육시설에서 구입하는 교육용 물품과 자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되어 내년 2월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2 신설-무상교육 특례)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보육시설에 있는 만 5세아 유아의 무상교육 실시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양순의원외 22인의 발의로 11월1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11월1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실시합니다.
3. 유아교육진흥법 법사위에 계류	유아교육진흥법이 11월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1월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됨으로써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위법(교육법)이 이번 회기에서 먼저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위법(유아교육진흥법)이 상위법의 법체계상의 문제로 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획(2)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11월18일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우리 속담에서 보이듯이 가정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간여하지 않았던 우리 현실이 내년 7월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여성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해왔던 이번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밝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원고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서 홍보용으로 작성한 것이나, '우리네 아이들'의 지면관계상 법안의 모든 내용을 다 옮기지 못하고 중점사항만 담았습니다.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통과

가정폭력방지법은 94년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아동문제를 상담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던 단체들이 모여 '가정폭력추방주간' 행사를 치른 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95년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이국의 입법례 조사,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방향에 관한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96년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정폭력관련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였다. 96년 8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각 지역 운동본부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법안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7년 10월 30일 8만5천여명의 서명으로 '가정폭력방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러한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의 활동에 자극받은 각당은 97년 하반기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3당 모두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으며 97년 국회 법사위의 조정을 거쳐 97년 11월 1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기획(3)

‘대통령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의 주요쟁점

· 여성신문사 ·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번 12월호에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여성·보육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려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네 아이들” 편집종까지도 마치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지 않은 까닭에 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 달래기며, 여성단체들이 마련한 ‘대통령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를 정리한 여성신문사의 원고를 대신하여 실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는 조순 전 민주당 총재가 참석하였으나 최근 신한국당과 합당하여 자동 후보사퇴가 되었기에 조순후보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가정폭력예방과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주요내용 →

‘21세기 여성정책과 삶의 질’을 주제로 11월3일부터 시작된 대통령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가 7일 막을 내렸다. 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전국 88개 여성단체(본회도 참가)가 준비과정에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최초로 TV 생중계된 여성정책 토론회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토론회는 여성정책, 정치현안, 삶의 질 세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KBS-2 TV로 오전 10시부터 1백분간 전국에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여성정책을 정점별로 짚어본다.

◎ 여성부

후보들은 일제히 여성부를 찬성하고 나섰다. 하지만 밑그림은 제각각이다.

김대중후보의 경우 여성부 또는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각부처에 있는 여성문제를 유기적으로 총괄, 대통령을 대신해 여성관련 정책입제를 청기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회창후보는 여성부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성관련 정책을 총집행하는 부서로서의 여성부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을 내비쳤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두가지 안을 제기했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의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이 그 첫번째 안으로, 대통령 직속 특보 또는 수석을 두어서 여성관련 업무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안은 보건복지,

환경분야 등을 합쳐 사회복지원을 신설하고 여기에 여성부를 두는 방법이다. 사회복지원 기관은 부총리급으로 하고 가능한 한 여성을 임명시키겠다는 것이다.

◎ 여성 할당제

할당제 실시예 후보들은 한결같이 ‘찬성’입장이었다. 특히 김대중후보와 이인제후보의 경우 선거법 개정까지 거론했다.

김대중총재의 경우 “법을 고쳐서 현재 2백99명 국회의원을 독일식으로 반 혹은 일본식으로 3분의 1 정도를 비례대표로 해서 비례대표의 30%를 의무적으로 여성공천을 하도록 한다”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간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3분의1의 여성위원이 나오게 된다는 것.

이인제후보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후보는 “지역대표로만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산업사회에 맞지 않다”며 “지역대표를 줄이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를 50% 가까이 확대, 여기서 반 정도를 여성으로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창후보는 내년도 지자체 비례대표에 여성을 50%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유지’, ‘폐지’, ‘검토중’ 등 다양한 답변 형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후보 전원이 “사회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대중총재의 경우 “호주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폐지에 찬성했지만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인제후보의 경우도 폐지에 찬성한다고는 했지만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주춤거렸다.

이회창후보는 “폐지 찬성에 손을 들고 싶지만 현재 일반의 정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3년 내 폐지가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대세론을 폈다. 국민의 일반정서에 맞춰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 여성고용

공공기관의 여성채용 할당에도 후보들은 일제히 ‘찬성’했다. 하지만 최근 노동의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대중총재의 경우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파견법 제정에는 반대했다.

이에 반해 이인제후보 경우 유연화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인제후보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지 않고 일반고용 형태로만 규제해서는 다양화된 산업사회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 매매춘 문제

최근 잇따른 사창가 폐쇄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매매춘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의 답변은 다소 막연했다는 평가다.

김대중총재는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여성의 직업알선 촉진, 미성년을 유인하는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인제후보는 "이 문제를 세상의 법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 해악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한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과 업소간의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 뭔가 사회 제도적으로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후보의 경우 외국의 사례를 들어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총재는 "외국의 경우 여성 법무장관을 임명해 성문란 추방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있다. 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한국보육교사회 제2차 정기총회 및 교사연수

회원 여러분 드디어 우리 가족 모두가 만나는 날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은 아직 논의중이라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구요, 공사다망한 일정 속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날짜 꼭 잊지 마시고 그때 뵙시다!

일 시 : 1998년 2월 7일(토) 오후부터 8일(일) 오전까지

장 소 : 서울

참가비 : 미정

*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1월 중순까지 공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유아교육체제 개혁과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한 건의문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보육교사회는 지난 10월 24일 종로성당에서 '바람직한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은 이래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저희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보육교사회는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공의를 모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토론회를 마치고 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회와 관련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경

1997년 3월 교육개혁위원회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체제 개혁안'이 3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발표되었다.

이 개혁안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계 뿐만 아니라 보육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움직임은 국민들로부터 기대와 환영을 받고 있으며 미래의 준비차원에서, 그리고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성과위주의 조급함보다는 신중하고 개방적인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 유아교육개혁 논의에서 공유되어야 할 기본 관점

(1) 유아교육의 개혁과 수혜대상의 범위는 보편주의적 관점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전체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개혁의 제1의 목표는 아동의 바람직한 교육을 이루어내는데 있다.

(3) 국민들의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은 학비보조나 세금감면, 차등교육비 적용 등 수요보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유아교육체제 개혁은 장기적으로 볼 때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대표되는 각각의 유아교육기관의 이해관계 대립이 아닌, 교육복지가 통합된 개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유아교육체제의 법적, 제도적 통합이라는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 공히 고른 질적성장과 내용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1) 내용적 통합을 위한 과정으로는 동일대상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양기관이 서로 교류해야 한다. 교사들의 법적 호환이 가능하게 하며 연구활동과 교수활동을 교류·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기관의 활동을 염두에 둔 연구 및 성과의 독점이 아닌 동일대상을 위한 연구성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2) 정부는 일원화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사회적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기관의 모형을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통합 이후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3) 실제적 통합을 이루는 단계에서는 일원화를 이루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유아교육전반에 대한 재고찰과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하며 각계의 의견수렴도 개방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4) 교사양성제도의 통합, 교사처우 내용의 통합, 교육비용의 일원화 등 일원화 내용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장과 연구도 선행되어야 한다.

5) 일원화 이후의 기관형태, 담당부처 등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이해대립을 초래하기보다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입각하여 일원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 유아교육 개혁중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취학전 1년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 4가지 기본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교육의 질적, 양적 내용확보를 위한 양기관의 국고지원 확대와 5세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재정확보 노력을 각각의 영역에서 기울여야 한다.

3. 현재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쟁점이 되고 있는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한 건의사항

(1) 유아교육체제 개혁과 5세아 무상교육은 보편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통합이전의 단계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던 유치원을 이용하던 상관없이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당장 시설확충에 들어가야 한다.
- 국고지원의 형식은 교육비용의 차등지원과 세금감면 등 수요보조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5세아 무상교육의 조속한 실시를 위하여 유아교육 관련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전체 5세아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유·보 일원화의 장기적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 되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기관들이 고른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통합조정기구의 역할

내용 통합의 역할	법·제도 일원화의 조건마련
1. 유·보 공동프로그램 연구, 실시	1. 교사양성제도의 통합
2. 각 부처에서 발간된 교재, 연구성과, 모범나누기 등 통합분위기 조성사업	2. 교사양성 커리큘럼 조정
3. 교사공동연구사업 및 교류행사 마련 실시	3. 일원화 후 시설장 자격 및 자격취득 문제, 교사의 처우, 역할 방식의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시범 시행
4. 통합 교사보수교육 실시	4. 교육비용 가운데 부모부담분에 대한 일원화 내용 구축
5. 유·보 상호 개방을 위한 과학적 단계설정과 선행연구 실시	5. 예산 통합의 일원화 모색
6. 통합을 위한 시범시범 프로젝트 운영으로 통합 이후의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6. 유아교육비 국고지원을 위한 절대 예산 확보의 노력
	7. 시범시설 프로젝트 관리 및 결과를 통한 일원화 과정의 수정·보완 작업 실시
	8. 일원화 실시를 위한 다양한 방법제시 및 의견수렴과정 마련
	9. 법·제도일원화 추진

다녀와서(1)

[유아교육 정책토론회]를 다녀와서...

박금희 · 본회 정책개발위원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연대모임’은 지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초청 - 유아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애초의 일정은 임재택 교수의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방안’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신한국당 이해구 의원,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 자민련의 이태섭 의원, 민주당 김승진 교수의 지정토론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해구 의원과 김원길 의원만이 참석을 하고, 그나마 이해구 의원이 자리를 일찍 떠 김원길 의원만이 토론에 참여하여, 국민회의의 정책 발표회가 되고 말았다.

우선 범연대모임의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방안을 볼 때 ‘유아교육 체제 및 기관’에 대한 성격규명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다. 이는 현재의 이원화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일원화 과정에 의미있는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 소감은 범연대모임의 안에 대한 검토와 유아교육법에 대한 검토, 토론내용에 대한 소개의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범연대모임이 문제로 제기하는 것을 보면, 1) 유아교육기관의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생산성 확대를 담보해야 한다는 것, 2) 유보이원화로 인한 부서간 갈등과 예산 낭비, 부모들의 혼란이 심각하며, 3) 유치원의 80%, 보육시설의 51%라는 높은 사립시설 의존도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전무함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이다.

그리고 사업목표로서의 개혁전망을 보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4조8천억원(연평균 6천억원)을 확보하여 5세 아동의 100% 취원율과 무상교육,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지원 및 시설확충을 이루어 OECD수준으로의 돌입을 제시하고 있다.

유치원의 보육기능의 인정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100년 역사의 유치원이 오늘날 전면적으로 그 기능의 수정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요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유아교육기관은 0세까지 대상연령이 낮아질 것과 유아교육은 물론 부모의 취업을 지지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갖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보육시설’이 생겨났다는 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범연대모임에서 지적하는 첫번째 문제는 이미 보육시설의 활성화로

접근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관계맺음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보이원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비효율성은 일원화에 대한 당위성을 공고히 하지만, 유보일원화는 양자를 무리없이 설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가치와 과정이 제시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어느 한 부분에 의한 다른 부분의 흡수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과정에서 기록권을 잃지 않으려는 입장의 제동으로 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연대안은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체제 정비를 강하게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유아교육법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유아교육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골격을 영유아보육법에서 취하고 있다.

제4장의 ‘책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공교육체제’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는 점과, 교원에 대한 부분과 학교의 운영중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법제정의 단계라 하기에는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한 예로 논란이 예상되는 항목은 제16조 교원의 종별과 자격에 관한 부분이다. 단순히 비교하면 기존의 유치원의 교원체제는 그대로 같은 직급으로 유아학교에 흡수가 된다. 반면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한단계 낮은 직급의 자격이 인정되고 있다. 즉 유치원 정교사 1급은 유아학교 정교사 1급으로, 보육교사 1급은 유아학교 정교사 2급으로 직급이 인정된다. 유아학교가 공교육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유아교육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고무적이거나, 자격의 인준에 있어 원칙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무원칙한 자격의 문제는 3가지 측면에서 도전받을 수 있다.

한 측면은 ‘보육교사 1급이 유아학교 정교사 2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만약 그간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있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평가된다면, 요구되는 전문성과 소양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한 단계 낮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교육을 통한 자격취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측면은 범연대모임의 인식의 전환의 시발점인 ‘유아교육기관의 역할의 변화’ 측면이다. 기존의 교육중심에서 다분히 보육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새롭게 요구되는 유치원교사 양성과정시 커리큘럼의 변화는 고려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복지’, ‘건강과 영양’, ‘보호와 가족관계 훈련’ 등의 부분에서 보다 강도 높은 훈련이 계획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 측면은 이러한 유아교육 개혁이 유보일원화의 과정이 될 것이라면, 이후 어느 시설이나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들의 시설간 호환성있는 양성과정의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세 가지 측면중 어느 하나 만족스럽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없어 실망을 준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범연대모임의 지금까지의 노력은 그야말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의 필요성의 문제제기’ 차원에서 높이 평가하고, 이후 보다 광범위하고도 지혜로운 의견의 수렴과정을 거쳐 법률 제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류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조급함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후 참석자들의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내가 갈 길은 어디인가?'라는 사활과 희비가 엇갈리는 자리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유보이원화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유아학교가 이원화의 병폐를 더욱 고착화한다는 즉각적인 반영이었다. 유아학교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은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에 보육시설들, 특히 민간보육시설들의 미래가 불안해지는 것이다. 결국 토론의 자리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보육시설, 특히 국민연금 용자를 받아 설치된 시설들의 시설장들이 항의와 질의와 배려를 구하는 의견의 난무로, 공교육체제 실현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토론에 참여야 기회를 줄 수조차 없었다(그리고 그 진지한 시설장들 앞에서 누가 감히 고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아무튼 토론회를 마치고 대회를 나오는 기분이 개운치만은 않았다. 심하게 말하면 이 토론회에서 '앞으로의 방향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을 보았다. 바로 여기가 바람직한 유아교육 체제의 고민의 출발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수준이 이러하데, 진정 아이들과 부모들의 입장에서 공교육을 이야기할 이들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동시에 진정 교사들의 할 일은 많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00만 가정 한마음통장 제도, 들어보셨나요?

여성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단체운영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원 및 회원관련인이 새로 통장을 개설할 시, 한국보육교사회가 가지고 있는 은행통장(조흥, 농협)의 코드번호를 알려주면 그 통장에서 발생하는 새후이자의 3%(가치식, 적립식 예금 및 신탁일 경우) 혹은 30%(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등 자유입출식 예금일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기금에서 보육교사회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는 본인은 전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이자발생금을 모두 갖되, 은행기금에서 따로 할당분의 금액을 본회로 주는 것입니다.

현재 조흥은행이나 농협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본회 코드번호를 은행창구에 가셔서 알려주시고, 없으신 분은 새로 개설할 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흥은행 코드번호 2000001643

* 농협 코드번호 3000520000

예)

구분		단체가 받는 금액		비고
		회원이 1명인 경우	회원이 100명인 경우	
적금	월5만원	1년	854원	85,400원
		3년	7,994원	799,400원
	월10만원	1년	1,709원	170,900원
		3년	15,988원	1,598,800원
신탁	1,000만원	1년	32,565원	3,266,500원
		3년	97,695원	9,769,500원

보육의 질

보육교사와 함께 개발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보육프로그램

-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사례연구 중에서 -

윤선영 · 순천향대학교 아동학과 감사

목 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결과의 해석 및 논의

본 연구는 필자의 베를린대학교 박사 논문을 위한 연구작업 결과 중의 일부분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7년도 추계 학술대회 자유논문 발표 중 연구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은 표면적으로 외국의 유아교육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모방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내용면에서 몬테소리, 피아제, 프로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식 접근방법,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방법, 통합교육, 혼합그룹 교육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교육"에 초점을 둔 실제, 즉 예를 들어 수업형태와 (재물잔치)와 같은 행사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 최근에 "교육"에 초점을 둔 보육프로그램의 모순을 극복하고, "보육"을 위한 고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 (초기적응지도) (보건복지부, 1997)와 같은 보육의 실재를 도울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육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구체적인 보육활동의 방향을 잡기엔 아직 가뭄의 물 한모금에 지나지 않아, 우리의 보육현실은 많은 연구자료를 요하고 있다. 그 이유를 필자는 첫째 대부분의 우리나라 보육시설이 민간시설에 의존해 있다

는 점과 둘째 보육활동이 다른 기관 및 시설과 무관하게 고립되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분석한다.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민간시설은 국공립시설도 포함하여 서로간에 경쟁의 대상이 되어 "보육의 상품화"라는 자본주의적 성향을 띄게 하며, 따라서 구체적인 각 시설의 활동 내용이 사회적으로 불투명해지기 쉽다. 1년이란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교사들은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며, 보수교육 프로그램 또한 정보 제공이라는 교육의 차원에 머물러 교육-실제적용-자기성찰-자기교육의 순환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기타 연구 및 교육 시설과의 협력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연구 및 교육기관과 보육시설간, 보육시설들 간, 교사들간의 고립상황은 본인이 시도한 교사들과의 작업을 통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및 교육기관에서 비록 보육현장과의 관계를 토대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는 그 범위가 학교 부설어린이집에 제한되어 있거나 연구조건과 배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시설에 국한되어, 일반 열악한 보육시설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질이라는 전제조건 때문에 연구된 보육프로그램이 자칫 비현실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론과 실제의 괴리(위에서 열거한 고립성, 불투명성, 비현실성)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개혁과 보육환경 개선, 교사처우 개선 등의 형식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과 이론적인 발달 즉 보육내용의 확립이라는 개념들로는 충분치 않다. 필자는 이러한 노력을 바로 우리나라의 보육현실을 토대로 하되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일반 교사들과 함께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현장에서 이론적으로 중요시하는 보육내용, 예를 들어 신체적·사회적·지적·언어적 발달, 영양 공급 및 식습관 지도, 건강 지도, 안전지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의해 실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상황(konkrete und existenzielle Situation) 하나 하나를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거나 문제가 야기될 때 교육적(보육적) 의미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교육학자가 연구한 내용이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상황을 돕지 못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교사의 어떠한 행위가 이론과 관련되는지 교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추상적인 이론으로 머물 뿐이다. 행위가 우선되어야 하는 교사들의 현실에서 교사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려면 끝없는 이론-실제-새로운 이론-새로운 실제...의 순환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들과의 협력작업을 통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의 가치를 진단해 보는데 있으며, 필자가 실행한 보육교사들과의 그룹작업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소개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과 보수교육을 위해서도 현재 보육교사들과의 협력작업에 의한 연구방법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주제)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 활동에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해결방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로 본 연구는 교사들과 함께 개발한 하나의 완성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뒷받침해 주는 실험적 성격을 띄고 있는 사례임을 밝히

고자 한다. 왜냐하면 주제란 고정적일 수 없고 시대와 지역사회 및 보육시설 당사자들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보육교사로 이루어진 세 그룹으로서, 천안 1 그룹, 서울 2 그룹이며, 전체 보육교사들 35명(8, 14, 13) 중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6명(1, 3, 2), 민간법인시설 11명(2, 5, 4), 공동육아 3명(0, 1, 2)명, 일반 민간어린이집 15명(5, 5, 5)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들의 교육적 배경은 보육교사양성교육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교육을 이미 받았거나 유아교육학과 유사한 교육조건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교사들의 교육수준과 상관된 주제산출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또한 교사 개개인에 대한 연구가 아닌 그룹의 역동성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적 배경은 그리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키지는 않겠다. 그룹작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거의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모두 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로서 자신들의 직업적인 활동의 질을 높이하고자 원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2. 조사대상과 조사자와의 관계

Wolfram(1996)에 의하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와의 관계는 신뢰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칭적 관계(symetrische Beziehung) 또는 보충적 관계(komplementaere Beziehung)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대칭적 관계는 조사분야에 대한 능력이나 질에 있어서 조사자와 조사대상자가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보충적 관계는 어느 한 쪽이 높은 위치에 있는 관계로서 한쪽은 학문적으로 우세하지만 다른 한쪽은 실제 경험에 있어서 유력함을 인정하는 관계이다. 필자는 가능한 일반적인 연구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사대상자의 열등감이나 소심함을 불러 일으키는 수동적인 역할을 지양하고자,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후자의 관계로 시작하였고, 점차 전자의 관계로 발달시켰다. 그 이유는 그룹작업에 처음 임했던 보육교사들이 연구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의해 조사자인 필자에게 가지는 기대(재교육 또는 정보제공)가 컸기 때문이었고, 그룹작업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공동 연구라는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자와 조사대상자의 관계는 자극을 주고 정리작업을 하며 모임을 이끄는 역할(조사자)과, 욕구를 표현하고 현장에 대하여 자유롭게 성찰하며 주제와 관련된 단어에 대한 정의를 현장의 시각에서 내릴 수 있는 역할(조사대상자)로 나뉘며,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결과를 산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가능한 없애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 형성을 통해 대칭적 관계를 지향했다.

3. 연구기간

필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교사들에게 알리고 교사들의 협조를 위해 두 차례의 강연을 하였다. 강연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협조로 1996년 5월 "아동관찰과 연구일기를 통한 교사의 자기성찰", 그리고 1996년 8월 민간보육교사연합회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보육교사 여름연수 때 "교사가 스스로 개발하는 활동모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실제적인 작업은 필자의 거주지인 천안에서는 1996년 9월 2일부터, 서울에서는 1996년 11월 1일부터 교사 및 원장모임을 가지고, 첫날에는 연구작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그후 천안 그룹은 1997년 5월 6일까지(15회), 서울 제1그룹은 1997년 5월 16일(15회), 서울 제2그룹인 영아 교사모임은 1997년 5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5회) 1997년 1월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 2주마다 실행되었다. 서울의 교사모임은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 안산, 그리고 멀리 부산에서 참가한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4.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교사들의 개별적인 활동과 견해를 조사하는 연구일기와 그룹 안에서 공동으로 추구하는 역동성을 조사하기 위한 그룹작업이라는 형태를 도구로 삼았다.

1) 연구일기

그룹작업의 핵심적 요소는 연구일기에 있다. 연구일기란 교사가 자신의 직업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는 변화를 주기 위해 아동, 동료 교사, 부모, 기타 보육활동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경험 중 특정한 주제에 따라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다. 연구일기는 실천연구(Aktionsforschung)의 한 방법으로 서 제안한 Altrichter와 Posch의 <일기쓰기>를 토대로 한 것이다. Altrichter와 Posch(1994)는 학교 교사들이 <일기쓰기>를 통해 스스로의 수업을 연구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행위를 연구의 범위로 귀속시키고, 그 질의 변화를 꾀하는 실천연구 방법을 발달시켰다.

2) 그룹작업

그룹작업은 그룹의 구성원들(보육교사들)이 2주마다 회근 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평균 4시간 가량 이루어졌다. 매번의 모임은 지난 모임에서 다루어진 내용보고, 연구일기의 발표, 토론, 자료참고, 다음 주제의 설정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곧 Reflexion과정을 의미한다. 즉 교사들의 욕구에 의해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일기 작성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교환하며 그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강화하여(토론), 참고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자신들의 작업에 의한 결과물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5.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1) 주제 설정을 통한 문제제기

연구일기를 쓰기 전에 교사들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 싶은 주제 또는 상황을 정했다. 이것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결해 주고, 문제의 원인과 핵심을 파악하게 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단서상황(Schlusselsituation)** 또는 **단서주제(Schlusselthemen)**라 일컫는다. 교사들이 스스로 정한 주제는 교사들이 현장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지 알려준다.

2) 연구일기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교사들의 문제의식 및 활동

연구일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교사의 욕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결정된 주제에 교사들이 실제활동에서 어떻게 접근해 가는가, 나아가 개인적인 해결방법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연구일기의 유형은 크게 어린이집에서의 일상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관찰과 교사들의 견해를 기록되었다. 일기라는 점에서 주제에 관련된 상황이나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교사의 시도에 따른 변화과정 및 견해를 규칙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일기의 핵심 기능은 교사들이 각자의 보육활동을 위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 진단해보고 질문을 하며, 나름대로 시도한 경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동료교사와 함께 작성하고 성찰(Reflexion)하는데 있다.

3) 그룹작업을 통한 교사들의 문제해결 욕구 및 방법

이 요소는 교사들이 각자 작성해 온 연구일기를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어떻게 관련시키고, 그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는 교사들의 욕구와 해결방법은 어떠한 역동성을 띄게 되는지, 또한 주제와 관련된 참고자료들은 거기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조사함에 초점을 두고 있다.

4) 주제정리

모임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기록하여 자료로 삼았다. 주제에 대한 정리작업은 조사자인 필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이 이론으로 체계화되는 즉 이론과 실재를 잇는 과정을 교사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여,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가치와 이론에 대한 편견("이론은 항상 나와는 무관하게 다른 어떤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을 지양하고, 다른 교사들에게 자극을 주는 살아있는 활동 모델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의 방법은 Glaser와 Strauss(1979)의 질적인 조사방법인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한 이론 발견(Die Entdeckung gegenstandsbezogener Theorie)을 근거로 했다.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한 질적인 연구는 조사과정 전체의 결과적 산물이므로, 필자는 수집된 정보를 위의 범주(Kategorie)에 의거하여 그 의미를 그룹들 전체와 관련지어 분석함을 원칙으로 했다. Glaser와 Strauss에 의하면 질적인 조사가 양적 조사를 준비하는 한 단계 전의 탐색작업으로서 가설(Hypothesen)과 컨셉트(Konzepten)의 발견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적인 조사방법이 양적인 조사방법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조사로서 사회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Glaser와 Strauss의 질적 조사방법의 범주에 의거한다:

- 정보의 수집과 분석의 동시성
- 비교 그룹을 통한 신뢰도의 극대화
-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에 대한 신뢰성
- 연구이론과 관련한 조사자료의 인용
- 양적 조사의 보충적 근거 제시의 배제

III. 연구 결과

1. 단서주제 - 교사들에 의한 문제제기

본 연구에서 교사들이 직업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제기하여 그룹작업에서 다루어진 단서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적응〉, 〈소외된 아이〉, 〈체벌〉, 〈식사지도〉, 〈재롱잔치〉, 〈부모와의 협력작업〉,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낮잠〉,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성교육〉, 〈영아의 행동 수정을 위한 제한선〉, 〈영아의 공격적인 행동〉, 〈영아의 식사지도〉, 〈우유병 떼기〉.

위의 주제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의식의 정도는 교사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주제를 가지고 연구일기를 쓰거나 토론을 하는 가운데 새롭게 의식화되기도 하였다.

각 주제에 제기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적응〉 각 어린이집들은 적응에 대한 뚜렷한 프로그램이나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고 교사들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그룹을 담당한 교사들간에 서로 다른 견해차이는 체계적인 적응단계를 돕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여 주었다. 적응문제가 새로 원에 들어오는 아동의 문제 뿐 아니라 연령별로 구성된 시설에서 반이 바뀔 때의 문제와 매일의 적응도 거론되어 적응문제가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원아를 맞이하는 시기가 연중이거나 3-4월에 편중되는 등

어린이집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린이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소외된 아이〉 교사들에게 "소외"라는 개념은 "문제아", 교사가 특정한 어린이를 대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고, 그 원인도 어린이의 특성, 교사의 적은 관심과 불필요한 개입, 부모와 가정환경에 있는지가 불분명하게 나타났다.

〈체벌〉 체벌에 대한 교사들의 기준과 원칙이 교사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체벌을 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평소에 하지 못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다.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규칙, 어린이들의 욕구와 리듬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화된 하루일과, 공동체 생활을 강조한 교육, 교사대 아동의 비율에 근거한 교사의 역량부족, 교사의 성격 및 스트레스와 건강상태, 어린이의 특성 및 욕구불만 등은 체벌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나, 교사들은 하루종일 체벌에서 시작해서 체벌로 끝을 맺는 어린이집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지양하는데에는 무력감을 나타냈다.

〈식사지도〉 모든 교사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주어진 음식을 어린이들이 골고루 다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잘 먹고 건강한 아이들로 키워야 한다는 시각은 부모들의 바람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식사시간에 체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반면 식사유형 즉, 메뉴, 식사시간, 식기의 변화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한 식습관에 변화를 주는데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른 어려움을 표현했다. 또한 가정(어머니)과 시설의 식사시간이 다르고, 등원시간의 불규칙성은 어린이들의 식습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재롱잔치〉 재롱잔치의 목적이 교사들과 원장들간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 원장과 교사들과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는 주제였다. 대부분의 재롱잔치는 어린이집의 특성과 어린이를 고려한 행사라기 보다, 어린이집의 홍보를 위해 무엇인가 부모와 지역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목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클 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힘든 행사임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들을 직접 돌보는 교사들의 시각과 대외적인 명분과 부모를 의식하는 원장들의 시각 차이로 부터 재롱잔치의 실체가 과연 누구를 또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부모들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모와의 협력작업〉 교사들은 효과적인 보육을 위해 부모와 함께 의논해야 할 필요성과 부모의 도움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여기지만, 부모와의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상황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특히 교사들에게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지 않았다는 '죄의식'을 유발시킬 때 가장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부모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어린이집 생활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해시키고, 교사를 알게 함으로써, 후에 부모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다.

〈낮잠〉 "식사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을 제재해야 하는 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들의 욕구와 발달상태에 따라 낮잠을 잘 수 있는 환경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낮잠을 자야 하는 것은 교사와 아동 모두에게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교사들이 습관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쓰는 언어적 행위와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린이와의 갈등상황에서 교사의 대처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성교육〉 성에 대한 어른의 고정관념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어린이들의 자위행위와 유사한 행동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반응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후자의 문제는 특히 미혼인 교사들에게 당황스럽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역할에 대한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는 교사들에게는 일반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에 힘을 잃게 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영아의 행동수정을 위한 제한선〉 영아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과 '문제행동'을 구분짓는데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었고, 좋지 않은 습관 즉 빠는 행동, 무는 행동, 공격적인 행동 등을 지양하는데, 영아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세심한 관찰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영아들의 그러한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교사들의 적절한 반응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주제는 영아를 배려한 시설의 여건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영아들을 위한 교사교육이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영아의 행동특성에 대한 개념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아의 공격적인 행동〉 '영아의 행동수정을 위한 제한선'의 주제를 다루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어하는 교사들의 욕구에 따라 제안된 주제로서, 영아들이 공격적인 행동이 교사들을 당황하게 한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원인을 교사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할 경우에도 교사들이 그때 그때 반응을 어떻게 적절히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공격적인 행동이 영아의 욕구불만이나 주변상황, 또는 발달과정인 영아적 표현 특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공격적인 행동을 줄여보려는 교사의 노력이 종종 어긋난다는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영아의 식사지도〉 우유, 이유식 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까지 다양한 영아들의 식사형태에서 모든 영아를 배려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식사방법도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다는, 먹었다 빨아내기, 거부하기, 식사 중 돌아다니기 등 다양하며, 입맛도 점차 다양해져 가는 이 시기의 영아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지도할 수 있는가 그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우유병 떼기〉 언제(어느 시기에) 우유병을 떼는 것이 좋으며, 가정에서와의 일관성 있는 결정과 실행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2. 실제 활동에서의 교사들의 문제의식

1) 처음부터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교사들의 연구일기에 나타난 주제를 잡게 된 이유와 그에 상응한 목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연구목표는 질문형식으로 표현했다:

주제를 잡게 된 이유 : "00이가 000에 적응시에는 거의 먹는 것을 거부하고 우유만 먹었다. 집에서 1000cc 이상 우유만 먹고 젖병으로 먹을 때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음식물을 잘 씹지 않고 삼켜버리는 습관이 있었다. 000에 적응이 되면서 짜장, 미역 같은 자기가 싫어하는 반찬 말고는 밥을 잘 먹었다. (이후 짜장, 미역도 잘 먹었음) 그러다 몇 달이 지나서는 싫어하는 반찬 없이 골고루 잘 먹고 토하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잘 먹던 음식까지도 혼자서 먹지 않을 때가 많고 그럴때 마다 선생님이 먹여주면 '뱀' 하거나 토하기도 하며, 받아먹기도 한다. 그리고 간식이

나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마지막에 남겨나 구석에 앉아서 선생님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00이를 먼저 불러주면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다. 어떤 날은 모른척 하고 먼저 와 버리면 뒤따라 와서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한테 확인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데리고 와서도 혼자 스스로 먹을 때보다는 선생님이 00이 이름을 불러 주어야 그제서야 숟가락을 드는데 거의 혼자서 먹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점심밥을 먹지 않아 견학을 안 데리고 간 적도 있었는데 견학을 갔다 올 때까지 먹고 있었다.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그래서 가끔 밥을 다 먹을 때면 칭찬도 해 주고 안먹을 때는 굶겨도 보았고, 매를 가져다 놓고 위협도 해 보았지만 그럴때의 반응은 불규칙적이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때 00이의 행동을 관찰 기록하기로 했다."

목표 : "00이가 스스로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연구일기 〈식사지도〉 중에서)

주제를 잡게 된 이유 : "00이는 우리 원에 다닌지 15개월 정도 된 고참으로 현재 우리반 아동 중 4명과 작년에도 같은 반이었다. 맞벌이 가정의 외동아들로 집안 분위기는 보수적이다. 요즘 우리반 아이들은 소그를 놀이를 많이 하는 편인데 다른 친구들과 잘 놀지 못하는 00이가 잘 눈에 띄곤 하였다. 관찰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기를 시작하였다. (한가지 더 밝히자면, 이전에 교사가 가진 00이에 대한 인식이 '저렇게 미운짓을 하니 친구들이 안놀아 주지, 쫓쫓' 하는 것이어서 보다 객관적인 관찰이 절실했다)"

목표 :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소외되는 00이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연구일기 〈소외되는 아이〉 중에서)

2) 처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교사들은 그룹작업을 경험하면서 주제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의식된 바에 의하면 상황에 대한 대처는 주로 교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존한 선호도나 즉흥적인 반응에 의해 이루어짐이 인식되었다:

"..... 그런데 오늘 똑같은 행동을 또 한 것이다. 교사가 00에게 '00 일어나세요. 약속했었지?' 하고 이야기하자 00은 고개를 흔들며 완강히 거절했다. 이런 과정에서 교사가 00의 허벅지를 3대 때리게 되었다. 이때 교사는 너무 화가 나 있었다.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떤 제재를 취하려 할 때면 말을 안하고 무조건 싫다며 버티는 00의 태도가 교사의 감정을 자극한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울음과 버팀으로 넘기려는 00의 행동에 책임을 박아야 한다는 생각에 버티는 00을 교사는 일으켜 세우려고 힘을 썼다. 몇 번을 이리다가 교사는 00에게 왜 책꽂이에 올라가면 안되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뒤 가서 놀게 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몇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 이렇게 반복되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 나가야 하나. 천천히 변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교사가 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 감정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 아이들의 비뚤어진 행동을 볼 때면 어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화가 나는 것처럼 화가 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00은 이런 일이 있는 뒤에도 창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행동을 또 했다." (연구일기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중에서)

"우리 어린이집은 3월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아이들을 적응시켜야 했다. 물론 상반기의 적응기간이 하반기의 적응기간보다 길었다. 우스갯소리로 어린이집에서 1년 내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말도 하곤 했었다. 나랑 친해진 00이는 내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 내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게 했고 내가 밥을 먹여 주었고 또 내가 낮잠을 재워야만 했다. 낮잠 잘 땀 꼭 우유병을 물고 베개를 베고 누웠다. 짜증내는 울음이면 졸립다는 얘기다. 어린이집에서 노는 아이들이 많았으므로 적응기간이 상당히 빨랐다. 이젠 엄마에게서 인사까지 하고 헤어진다. 아직도 밥은 안먹고 국만 국물만 먹는다. 우유에서 금방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밥을 주었다. 이유식을 해야 했지만 여건상 00만을 위해 이유식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00반 담임이었고 00반(00의) 담임은 그만 둔 상황이었으므로 우리 교사들은 짝꿍이 00반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것이다. 그래도 00이가 적응을 빨리 해 주어서 기쁘다. 우리 교실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이야기 나누기 시간엔 카페트에 앉아 있고 학습활동 시간에 종이와 연필을 주면 나름대로 뭔가 흔적을 남겼다. 집중력도 있었다. 소유욕이 강해 언제 배웠는지 자신의 장난감을 잃으면 나에게로 와서 이르곤 했었다. 이렇게 적응은 교사와 유아가 대책없이 서로 친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유아나 교사나 적응이 쉽지 않을까 생각된다." (연구일기 <적응> 중에서)

3) 교사들이 개괄적인 원칙을 가지고 생활하는 주제는 <체벌>과 <식사지도>였다:

"우리반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위 (2명의 선생님이 합의한 내용)

① 다른 아동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밀기, 때리기, 꼬집기, 할퀴기, 발로 차기, 머리카락 당기기 등)

② 특히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아동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장난감, 책, 가방, 실내화 등)

③ 책을 찢거나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④ 장난감이나 기타 교구를 의도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특히 교사의 물건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⑤ 식사태도가 좋지 못할 때 (식사중에 드러눕거나 뛰어 다니는 행위, 음식물을 집어 던지거나 버리는 행위, 식판과 수저에 밥을 올려 놓거나 장난하는 행위)

⑥ 교사의 허락없이 어린이집 건물 밖으로 나가는 행위

⑦ 교사가 준비한 수업 및 전체활동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행위

문제 행동에 대해 사용하는 벌의 종류

① Time-Out; 놀이, 활동으로부터 일정시간 떨어져 있기

② 책임부과적 벌; 장난감 혼자서 치우기 등

③ 역보상형; 식사(간식)태도 불량시 안 준다 또는 다른 아동이 다 먹은 후 혼자 먹게 한다. 장난감을 던지거나 책을 찢을 경우 다른 놀이를 할 수 있으나 장난감을 만지지 못하거나 책을 보지 못하게 함

④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벌; 엉덩이 맞기, 손바닥 맞기" (주제 <체벌> 중에서)

"간식을 포함한 식사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지키려고 하는 규칙은

- 골고루 먹는다.

- 남기지 않고 먹는다.

- 한자리에 앉아서 먹는다." (연구일기 <식사지도> 중에서)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결정한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불확신감을 표현했다:

"..... 강제로 먹이거나 또는 유아의 판단에 맡기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유아의 식습관을 교정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단, 식사의 경우만이 아니라 친구를 물거나 때려 그때 그때 주의를 주더라도 그 행위의 빈도수는 줄지만, 유아가 교사의 눈치를 보거나 주의를 살피며 뒤에서 하는 등 다른 행동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안전이나 집단생활의 유지를 위해 또는 아이의 특정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 제벌을 하나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가늠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삼 교사의 잔소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해서는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일기 <체벌> 중에서)

4)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관계는 기본적인 약속이나 일치된 의견을 전제로 하지 않고 문제 발생시마다 즉흥적인 대화에 의존한다. 이때 교사들은 종종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다:

"**이가 삼일째 오지 않는다. 00이도 어제는 왔으나 오늘은 오지 않았다. 3명의 교사가 일하는 날인데 2명의 엄마가 와서 상담을 했다. 자유놀이 시간이었지만 너무 어수선했다. 업컨데 업컨 격으로 세탁실의 하수구가 막혀서 세탁기 물이 넘쳐 큰 방으로 흘러 들었던 것이다. 상담은 다행히 끝나쳐졌고 교사들이 물을 퍼내고 장난감을 치우고 살림살이 나르고 아이들은 물구경 하느라 정신이 없고 어린이 A, B, C는 물 있는 곳에서 놀고 싶었던지 들어왔다가 옷을 다 버려야만 했다. 오후에 00이 엄마가 전화를 했다. 00의 모든 실증의 원인은 아파인 것 같다. 아파한테만 너무 의지하고 기쁨을 찾는 것 같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은 좋으나 저지선이 없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는 잘 알고 있는 듯 수긍하였다. 덧붙여 어린이집에 오기 싫어해도 일주일에 3일밖에 안 오니까 더 흥미를 못느끼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일주일에 3일 안 나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연구일기 <적응> 중에서)

"00이의 엄마와 상의하여 집하고 같이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오늘은 젖병을 주며 이젠 젖병으로 우유를 먹지 않을 거라고 설명해 주었다. 알아들었는지 싫다고 고개를 마구 흔들었다. 낮잠 시간에 제가 옆에 누워 같이 잤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눕혔는데도 젖병을 빨 때처럼 잠들었다. 집에서는 잠들기 전에 이유없이 울어 조금씩 주고 자다가 일어나 찾을 때는 주지 않는다고 한다." (연구일기 <우유병 떼기> 중에서)

"..... 옷을 갈아 입히기 위해서 바지를 벗기는데 바지를 3개나 입고 있었다. 나는 00이가 아마 오줌을 급하게 누다가 바지가 잘 안 내려와서 그만 옷이 젖었구나하고 짐작할 수 있었다. 오후에 00 보고 '00야, 오줌볼 때 바지가 잘 안 내려와서 오줌을 옷에 썼니?' 하니깐 '예'하고 대답했다. 저녁에 00 엄마가 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깐, 놀란 표정을 하면서 '00이 왜 이래요,

아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줌 못에 누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했다. 00 엄마는 잘 하던 아이가 00에 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4살이 되도록 못에 한 번도 오줌을 누지 않았을까! 갈수록 00이 엄마가 어떤 말을 할지 두렵고, 어디서부터 00이 엄마와 이야기를 풀어 나갈까 하는 고민이 생겼다." (연구일기 <부모와의 협력작업> 중에서)

5) 시설의 보육방침과 환경여건 그리고 아동을 중심으로 한 배려 사이에서 교사들은 갈등을 느낀다:

"..... 상담을 요청하려고 하면 돈 가져 오라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등, 하원 때는 직접 맞대면을 하고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 원장님이 부모들이 싫어한다고 해서(부모 상담을: 필자 주) 안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료로 해서 보낸다. 교실로 부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교실을 개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가 오면 아이 이름을 마이크로 부른다." (토론기록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중에서)

"우리는 군대식이다. 베개만 해도 40개에다 자리배치 하고 누으면 수해 나서 교실에 피난과 모포 깔고 누워있는 상황이다. 한 모포에 8명이 자는데 아이들 다리가 서로 엇갈린다. 대부분 4-5세이기 때문에 잠은 잘 자는 편이나 좁아서 뒤척일 수도 없는데다 카세트까지 고장이 나서 음악이나 동화테이프는 들지 못한다. 우리는 9시만 넘어도 20명이 넘게 온다. 하루종일 40명의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부대끼기 때문에 낮잠시간이 아이들도 안정할 수 있고 교사들도 쉴 수 있는 꼭 필요한 시간이다. 3월 첫째주까지는 길들이기를 한다. 우리는 공간이 없어 안자게 한다거나 놀게 한다거나 할 여지가 없다.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일률적으로 자고 일어나야 한다. 교사들은 그 시간에 자거나 쉬다. 아이들이 죽 누워있는 모습을 되도록 엄마들이 안보게 한다. 보는 교사들도 놀라니까." (토론기록 <낮잠> 중에서)

"요즘 재롱잔치에서 재롱이라 함은 근 한달에 걸쳐 혼나며 갈고 닦은 노래, 춤, 동극 등을 학부모 앞에서 보여 주는 것으로, 부모는 우리 아이의 모습에 대견해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아모집의 홍보수단으로 재롱잔치를 쓰고 있다. 부모에게 보여주는 전시행사가 되어버린 재롱잔치는 정작 잔치의 큰 주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은 전시장의 전시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준비과정에서 시련을(?) 겪게 만든다. 재롱잔치가 끝나면 교사는 안도의 숨을 쉬고, 아이들은 고된 연습에서 해방되어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재롱잔치가 교사, 학부모, 아동 모두가 1년을 정리하며 그간의 일들을 서로 격려하며 모두가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나 그러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다. ① 교육열이라 불리며 바람처럼 불려 다니는 이러저러한 교수방법과 행사를 특정 원(어린이집: 필자 주)이 따르지 않기는 힘들지 않나, 특히나 사립인 경우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된다. ② 재롱잔치 등 원의 행사에 교사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교사가 반의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원장의 지시에 따라 1년의 행사가 진행되는 실정이라 재롱잔치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 ③ 연령이나 학급수, 원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재롱잔치가 기획되고 시험되고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일기 <재롱잔치> 중에서)

3. 문제해결의 접근방법

1) 연구일기에 나타난 개별적인 시도방법

시설 내의 교사들이 함께 상의하지 않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고민하여 여러 가지 의도적인 행위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연구일기를 쓰면서 00이를 적응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의도적인 행동을 했다. (가끔은 (아동의) 눈에서 사라지기, 내 불일 보러 갈 때는 때어놓고 다니기, 이동시 앉고 다니지 않기, 손가락을 빨 때 안아주기, 안아주다 슬며시 내려놓기, 잘 때 00이 옆에 10분 정도 누워있다가 일어나기 등)" (적응) 중에서)

"선생님, 00 엄마예요. 00가 기관지가 약해서 잠잘 때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스티로폼로 바람벽을 해줄려고 하는데요. 오후에 가져가겠습니다." 전화를 받고 000 선생님은 당황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교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전화를 걸어버리는 엄마에게 화가 났다. 이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기관지)은 아닌데 싶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오해 없이 서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스러웠다. 우선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싶어 00가 가는 000 소아과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이름은 밝히지 않고 놀이방이라고 하고 물어 보았다." (부모와의 협력작업) 중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한 시설의 교사들이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낮잠을 방해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교사에 의한) 환경 중 수정할 것은 평소에는 약 먹이는 교사는 놀이방에서 아이들을 먼저 재우는 교사가 했는데 약을 먹이는 사이 아이들이 (특히 영아) 소란스럽고 먼저 놀이방에 들어온 아이들이 미끄럼틀이나 이불에서 뛰고 놀면 그 다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경우를 각 각 교사들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설거지 하는 교사가 힘들지만 약을 먹이기로 했다. 낮잠 재우는 선생님은 양치질을 먼저 끝낸 영아들의 옷을 벗겨 데리고 들어가서 먼저 재우고 있으면 뒤따라 오는 (4, 5, 6세) 아이들도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눕게 된다. (물론 소근거림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리고 낮잠 자기전 물과 오줌, 똥은 누고 오는 것으로 한다. 3일 정도 위 사항을 참고로 관찰기록을 더 하기로 했다." (낮잠) 중에서)

2) 그룹에서 나타난 공동 문제해결 접근방법

다른 시설의 운영, 환경, 교사의 구성, 교사들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등 실제적인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나도 연구일기를 작성하며 왜 굳이 다 먹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다른 교사들은 식습관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집단급식은 개별적인 배려가 안되는데 다른 곳에서의 개별지도는? 각기 다른 등하원 시간으로 인해 일정한 공동생활의 규칙에 맞추기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일하는 어머니는 아이를 늦은 시간에 데려오고 늦은 아침에 의해 점심 밥맛을 잃게 한다." (토론기록 <식사지도> 중에서)

“부모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데 교사로서 나는 통합적인 활동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은 교사의 말도 맞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 평행선을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지 다른 교사의 의견을 듣고 싶다.” (토론기록 〈부모와의 협력작업〉 중에서)

교사들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그룹토론을 통해 얻기를 원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을 보니 재봉잔치를 아이들이 한번씩 나와서 재봉 펴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별 합창대회나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나 사실적으로 가능할 지 감이 안온다. 우리같이 234명이나 되는 시설에서는 그럴 어떤 프로그램들이 적절한지 들어보고 싶다.” (토론 기록 〈재봉잔치〉 중에서)

“우리의 경우 집단식사를 하므로 공간 여건상 30분 만에 식사를 끝내야 하며, 식단 또한 변화를 주기 어렵다. 어떻게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야기하고 싶다.” (토론기록 〈식사지도〉 중에서)

교사들은 주제와 관련된 정보자료를 얻기를 원했으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실제에 가까운 정보를 원했다: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각 주제를 다룰 때마다 주제와 관련된 정보자료를 접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가끔 윤선영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가 좋았다”),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한 정보교환과 함께(“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중에서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좀 더 풍부한 자료에 대한 욕구(“새로운 정보가 부족하다”)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이 제기한 문제와 직접 관련되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고, 더구나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참고하지는 못했다(연구의 목적이 자료들의 검증에 있지 않고 교사들의 주제 및 문제제기에 있었으므로 자료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 주). 정보자료로는 각종 전문서적, 신문이나 계간지에 실린 글 등을 이용했는데 교사들에게 주는 효과는 자료 자체가 가지는 완벽성(이론적) 또는 한계성(추상적) 때문에 오히려 교사들의 자신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예를 들어 자료소개 후 모두 침묵을 한다든지 비현실적이라거나 가깝게 와 닿지 않는다는 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이 표에 의하면 부모와 아이의 분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교사가 아이에게 신뢰받는가를 평가하는 척도는 따로 있는지? 교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첨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놀더라도 떨어지는 순간에 울 수 있다.” (주제 〈적응〉에서 자료 “독일의 적응표준단계”(Ulrike Ziesche, 1996)에 대한 토론기록 중에서)

교사들은 어린이들과의 작업을 주제의 특성에 따라 감정적으로 또는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그룹토론을 통해 성찰하게 되었고, 이것은 교사들에게 자극이 되어 자신을 비판적으로 변화시켰다. :

“앞으로 논의를 할 때 발표는 사례로 들고 특수한 상황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들을 놓고 마음을 열어야겠다. 교사들이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처럼 교사로서 자기영역을 지키고 싶은, 자존심을 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은연중에 작용한 것 같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논

의가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따라서 공격적인 발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듣는 사람도 자기발전을 위해 나온 이야기에 대해 너무 공격한다고 느끼지 말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 나 자신도 반성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토론기록 〈체벌〉 중에서)

“교사들이 어느 정도 아이들의 기호를 고려한다 해도 연구일기를 참고하여 보면 실제로는 어떻게든 먹이려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어른이 된 한 사람의 실제의 경우를 들어 보겠다. 그 사람은 콘푸레이크를 꼭 우유 없이 먹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어려서 엄마가 항상 우유에 말아 먹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는 꼭 우유 없이 먹는다고 한다. 이처럼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여러 가지 음식을 가능하면 꼭 먹여야 하는가?” “교사에 의해 식습관이 형성된다. 먹어보는 기회는 중요하다. 남기는 습관은 좋지 않다. 어린이로서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는 분명치 않다. 어른의 개입이 반드시 정신적인 건강에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고기를 선호하는 것은 어른의 영향 탓이다. 사람의 성격은 먹는대로 지어진다는 말이 있다. 풍족하다 보니 오히려 신체건강에 소홀하기 쉽다는 생각이 든다.” (토론기록 〈식사지도〉 중에서)

교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를 표현했다:

“사회풍토에 문제가 있다. 주위에 떠도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난무하다. 사회의 교육적 가치관이 변화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의 스트레스는 계속 간다.” “우리는 구청에 민원이 들어간 적이 있다. 저 어린이집은 놀기만 한다. 선생님이 토요일날 오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등, 그런 내용이었다. 그 중 가장 심한 것이 어린이집에서 공부하는 안 가르치고 놀기만 한다는 것인데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만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 어린이집의 교육방향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엄마들이 검증,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겠다. 학기 초에 부모교육을 한 이후 부모참여수업 등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 불찰이다. 민원이 있을 후 교사들이 학습지를 하자고 나섰다. 그게 우리도 편하다면서.” (토론기록 〈부모와의 협력작업〉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 중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니 다른 대안은 어려우나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교사가 컴퓨터로 멋지게 준비하는 것 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그림, 인사말을 아이들을 통해 전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토론기록 〈재봉잔치〉 중에서)

4. 주제정리

주제정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교사들이 스스로 활동을 연구하고 토론한 결과를 시각화하여 실제활동이 내포하는 이론적 토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며 실제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정리된 내용을 보고 교사들은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해 내었는가?”하며 놀라워 했으며, 그룹작업의 결과적 산물로 그 가치를 평가했다. 지면의 한계상 주제정리 중 〈우유병 떼기〉 하나만 소개하겠다:

우유병 떼기

1997. 7. 23. 영아교사 연구모임 결과 정리 정리자: 윤 선영

소아과 의사(하정훈, 한계례 21, 1997)는 영아의 빠는 욕구는 물까지면 충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아기가 돌이 지나면 우유병을 끊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머니들은 우유병 떼기를 게을리 하거나, 행여 욕구불만이라도 생길까봐 염려하여 적당한 시기에 우유병 끊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중에도 심지어 4세가 되도록 우유병에 집착하는 어린이가 있었다. 교사가 우유병 떼기를 시도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거론되었다:

1. 어린이집에서 우유병을 떼는 시기

대개 돌이 지나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보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16 - 20개월에 시도되고 있었다. 그 외에 24개월 또는 4세인 아이가 우유병을 아직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유병 떼기가 늦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우유병을 아직 떼지 못한 이유

- 어머니들의 식사 챙기기에 대한 계을 때문(우유로 때문이다)
- 어머니들이 아이의 고집을 못이겨 우유병을 주는 경우
- 어머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우유병을 주기 때문
- 우유병을 떼면 밥을 잘 안먹으니 영양상태가 안좋아질까봐 안스러워서
- 아이의 잠 재우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
- 아이가 우유를 먹든 안먹든 들고 다니게 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 할머니의 과잉보호 때문('에 잡겠다. 우유병에 주지 뭘 그렇게 울리나')
- 공갈 젓가락지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아이의 빠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3. 우유병을 늦게 떼고 나서 오는 문제

- 씹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밥을 잘 안먹는다.
- 잠재우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대신 충족될 것을 찾는다(손가락 빨기, 장난감 가지고 있기 등).

4. 우유병을 늦게까지 떼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

- 치아가 썩기 쉽다.
- 말이 느려진다.
- 씹는것을 싫어한다.
- 의존심이 증가한다.
- 고집이 세어진다.
- 우유병 떼기가 몇배나 힘들어진다.
- 절제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다.
- 우유병 이외의 도구사용을 어렵게 한다.

5. 우유병 떼기에서 겪는 어려운 갈등

- 할머니의 손자 또는 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인해 어머니가 우유병 떼기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할머니가 반대하게 되면 아이는 집안의 실세를 알아차리고 더욱 힘차게 우유병을 요구하게 되어, 무리해서 떼려하면 자칫 고부간의 갈등과 교사와 할머니와의 갈등이 야기된다.
- 아이의 몸이 약해 체중이 미달이거나 질병이 잦을 경우 영양부족이 될까 또는 행여 어린이집에서 우유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아이의 떼쓰기를 어른(교사, 부모)이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

6. 우유병 떼기의 방법

- 잠들기 전에 너무 안정을 찾지 못하면 우유병에 보리차를 넣어준다.
- 우유병 대신 안정감을 주는 물건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다.
- 할대를 이용하여 마시게 한다.
- 컵에 병과 같은 납작한 주둥이가 달린 용기를 사용한다.
- 컵을 사용한다.

- 씹기에 편한 음식을 주다 차츰 딱딱한 음식으로 전환해 본다. 이 방법은 공동취사를 하는 어린이집에서 따로 음식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와 아이들 스스로가 죽을 싫어하는 문제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들 입맛과 공동취사에 적당한 부드러운 요리개발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7. 주의할 점

우유병 떼기는 교사 뿐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또는 할머니)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온 집안 식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유병 때문에 잠부정이 심할 경우 안정감을 찾도록 순차적 방법(6)을 써 본다. 한 아이가 우유병을 떼게 되면 다른 아이들도 함께 우유병을 떼고 싶어할 경우도 있다. 여러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시기에 함께 떼는 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아이 스스로 큰 아이들을 모방하여 우유병 대신 컵을 사용하거나 밥을 선호하여 먹을 경우 격려와 칭찬을 하여 습관의 변화에 지지를 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서투른 컵 사용으로 인해 또는 서툰 수저사용으로 많이 흘리더라도 용납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유병 떼기를 쉽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교사가 얼마나 여력을 가지고 여러 아이들을 식사 후에 빗질(씻겨주기, 옷 갈아 입히기, 청소하기 등)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막여 주거나 마시게 해 주다가 차츰 혼자 먹게 또는 마시게 하는 2단계의 식사지도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영아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한이 없다는 것이 공통의견이었다.

IV. 결과의 해석 및 제언

위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성으로 해석된다:

교사들이 그룹작업에서 제기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보육현장에서 가지는 문제는 대부분 "수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있다는 점이다. "교육"을 강조하는 유아교육(유치원 교육) 풍토가 아직도 지배적인 상황에서, 종일반을 위한 어린이들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즉 교육과 보호를 포괄적으로 충족 시켜주는 내용이 부족함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 어린이의 행동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주로 어린이의 발달 특성만을 중요시 하거나 육아상담에서처럼 '이런 행동에는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교과서적 자료들(예를 들면 강숙현(역), 1991)이 사실상 교사와 아동간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아동의 행동 그 자체 이상인 가정환경, 그날의 건강상태, 전후 상황, 시설의 상황 및 여건, 하루 일과운영 등등과 연관지어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상황이나 문제를 정확히 표현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부족하여 교사들은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개별적인 개념정리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했고(예를 들면 <소외되는 아이>, <영아의 행동수

정을 위한 제한선), 〈영아의 공격적인 행동〉 등), 이는 다시 문제 및 갈등에 대한 교사들 스스로에 의한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였다. 그와 반대로 교사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체벌〉과 〈식사지도〉에서는 보육시설의 환경여건과 무관하게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며 건강과 안전 지도를 해야 하는, 자칫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질서만을 중요시하는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교사들에게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에 혼돈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의 문제의식 중 부모와의 갈등문제는 보육시설이 가족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교육시설" 차원에서 바라보는 "부모교육"의 시각이 "부모와의 협력작업"으로 바뀌어야 함을 명백히 드러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선호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부모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여 공동의 행사를 수행하거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갈등 사례는 교사의 역할이 보다 전문화되어, 교사와 부모가 서로 보완 또는 보충적인 관계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야기되고 있음을 보더라도, 일방적인 기대나 불만을 표시하며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보육시설 간의 새로운 관계형성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시설장 또는 원장과 교사와의 관계 또한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었다. 그들 삼자간의 갈등은 역학적 관계가 형성되어 어느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종적인 관계에서 교사가 원장과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아동과의 생활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러한 갈등을 단순히 삼자간의 역학적인 관계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그리고 보육시설이 근본적으로 가지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원장, 부모, 교사가 개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를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과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보육제도와 같은 공동의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의 문제가 그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아동에게 전이되기 때문이다. 연구기간 중 특히 5세 교육의 공공교육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제도적 갈등과 사회적 인식은 다시 한번 보육교사들에게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노력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비생산적일 수도 있으나, 공통점은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대안찾기"였으며, 그 대안은 주제와 관련된 정보자료와 다른 교사들의 대처 방안을 엿보으로써 얻으려 하였다. 또한 대안의 실현은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또는 교사들이 찾을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연구일기와 주제정리를 통해 실제 상황을 가깝게 경험한 교사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자신들의 경험을 개념화 할 수 있는 정보자료를 원했으며, 이론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음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며 반론을 제기했다. 본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논리적이 아닌 **상황적으로** 자신들의 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었고 문제의 해결방법 또한 **실제 사례와의 관계**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작업에 가장 큰 어려움 준 것은 교사들의 업무부담이었다. 연구일기를 작

성하면서 교사들은 어린이를 돌보는 일뿐 만 아니라 청소, 일지쓰기, 교재교구 만들기, 환경구성, 상담, 행사준비, 등등의 각종 업무로 인하여 자신들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간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어린이들과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은 바로 보육프로그램이 그러한 실제적인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연구결과는 보육자료가 보육교사들의 문제를 내포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그 가능성, 내용,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보육프로그램이 교사들과 함께 개발되고, 그것이 다시 교사들에게 문제해결을 돕는 모델자료가 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서론에서 지적했던 보육시설 및 보육프로그램의 고립성, 불투명성, 비현실성은 지양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향후 개발되는 보육프로그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보육프로그램은 보육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즉 단서주제)를 포함하고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Know-How를 이용해야 한다.
-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이론은 실재를 바탕으로 교사, 부모, 원장, 학자들에 의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이론은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한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이론의 확립에 보육교사, 부모 원장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교사들 뿐 만 아니라, 부모, 원장, 학자들에게 있어 학습의 과정(Lernprozess)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자극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일기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보육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참고문헌

- 강숙현 편역(1991) 발달적으로 적합한 유아교육실제. 전남대학교
- 보건복지부(1997) 영아보육프로그램 2권, 초기적응지도. 보건복지부.
- 윤선영(1996) 교사가 스스로 개발하는 활동모델. 1996년 보육교사 여름 연수,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윤선영(1997) 보육교사의 연구일기와 그룹작업을 통한 재교육. 보육교사 현장연구 자료집, 한국보육교사회.
- 주정일·백경임(1989) 성, 아기때부터 사춘기까지 -성교육. 서울: 샘터
- 하정훈(1997) 우유병이 고집쟁이 만든다. 한겨레 21(7), 83.
- Adler, (1973). Individualpsychologie in der Schule, Frankfurt a. M.: 1929. Altrichter, H. & Posch, P. (1994). Lehrer erforschen ihren Unterricht. Eine Einfuehrung in die Methoden der Aktionsforschung. 2. Auflage, Bad Heilbrunn: Klinkhardt.
- Andres, B. & Laewen, H.-J. (1993). Ich verstehe besser, was ich tue ... Erfahrungen mit einem Eingewohnungsmodell. Berlin: FIPP-Verlag.
- Blanke, S. (1991). Beziehungen zwischen Erziehern und Kindern. Hilfen fuer den Alltag 2. Auflage, Koeln: Stuttgart: Berlin: Mainz: Kohlhammer.
- Fischer, G. (1993). Selbstbestimmte Fortbildung von Erzieherinnen: Ueber die Bescheidenheit paedagogischer Theorie und die Qualitaet einer sich selbst reflektierenden Praxis. In E. Heller & B. Tennstedt(Hrsg.), Das Selbstverstaendnis der Erzieherin, Berlin: FIPP-Verlag, 120-127.
- Glaser, B. G. & Strauss, A. L. (1979). Die Entdeckung gegenstandsbezogener Theorie: Eine Grundstrategie qulitativer Sozialforschung. In C. Hopf & E. Weingosten (Hrsg.), Qualitative Sozialforschung, Klott-Kotta.
- Heller, E. (1993). "Aus der Praxis - fuer die Praxis" Ueber die Nuetzlichkeit des Erfahrungsaustausches von Erzieherinnen. In E. Heller & B. Tennstedt(Hrsg.), Das Selbstverstaendnis der Erzieherin, Berlin: FIPP-Verlag, 117-119.
- Hoffmann, M. (1992). Zusammenleben im Kindergarten. Dynamische Prozesse zwischen Kindern, Eltern und Erzieherinnen, Weinheim und Muenchen: Juventa Verlag.
- Lindemann, F. (Hrsg.) (1996). Modelle gegen den Frust. Ermutigende Ansaetze einer anderen Kindertagesbetreuung. Berlin: FIPP-Verlag.
- Schaudt, H.-D. (1984). Abweichendes Verhalten im Kindergarten aus der Sicht der Erzieher, Phil. Diss., Univeritaet Innsbruck.
- Thomen, B. (1985). Alltagspsychologie von Lehrern ueber verhaltensauffaellige Schueler. Bern: Huber.
- Wolfheim, (1975). Psychoanalyse und Kindergarten. Muenchen/Basel: Juventa
- Wolfram, W.-W. (1995). Das paedagogische Verstaendnis der Erzieherin. Einstellungen und Problemwahrnehmungen, Weinheim und Muenchen: Juventa Verlag
- Ziesche, U. (1996). Veraenderungsprozesse initiieren und begleiten Kitaberatung mit neuem Selbstverstaendnis. Mitgestaltung von Verwaltungsreformprozessen im Kindertagesstaettenbereich, Bezirksamt Reinickendorf von Berlin.

다녀와서(2)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7 추계학술대회 참관기

임남희 · 본회 부회장

숨가쁜 10월을 보내고 여유로운(?) 11월이 될 것이라는 행복한 망상은 11월 첫날부터 여지없이 깨졌다. 더 많은 일정과 행사가 대기하고 있던 것이다.

여러 학회중 보육쪽의 유일한 학회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주최의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러 대전행 버스에 몸을 싣고 다시 택시를 타고 유성에 도착했다.

「한국 유아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발표」 논문집을 받아들고 행사장에 들어서니 중앙대 김영모 교수의 「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초강연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김영모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보육서비스가 실시된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아동의 발달욕구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유아교육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지표는 유아의 발달과 복지에 필요한 지표이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필요성의 지표라고 설명한다. 본문에서 이론적·정책적 배경, 보육프로그램의 기초, 보육프로그램의 구성요소, 기본원칙, 시설종사자의 역할을 다루었고 결론에서는 기존 유아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의 모색으로 7가지를 제시한다. 아동중심의 보육서비스는 인지적 발달이나 인성 발달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신체적 발달(보호)과 사회성 개발에도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다고 하며 사회적 통합이 절실한 사회에 있어서 '아동중심'과 '성인중심'의 보육프로그램이 병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는 '사회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친화적인 인간성을 창조하여야 한다. 세째, 상호작용을 도구(교구)이와 인간관계 및 자연환경과의 친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 네째는 아동 개인 중심의 프로그램 강조로 사회성의 발달보다는 교구중심 및 자유놀이 강조경향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섯째로 협동과 연대 및 이타심을 조장하는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저소득층·맞벌이 가정·장애아 등을 위한 보상프로그램 또는 특수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과 시설종사자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자기훈련의 필요성을 위한 방향 등을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어 6가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이어졌는데 '유아의 보호프로그램의 기본 모형을 시작으로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의 기본모형의 기초발표는 사회복지분야의 연구진이 하였고, 토론은 아동학분야와 보육현장의 운영자로 진행했다. 주제 탐구 중심의 영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방향인 제4주제부터 '주제 탐구 중심의 영유아교육프로그램의 내용체계, 운영체계'로 이어

지는 주제발표는 아동학분야의 연구진이 하였고 토론은 유아교육분야의 전문가와 역시 보육현장의 운영자가 결합하는 형식을 취했다.

다음날은 개인논문 발표 및 토론으로 이어졌고 1분과에서는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른 질적수준 분석과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과 대책,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의 보육시설의 의의와 기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분과에서는 '어린이집 놀이시설과 놀이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육교사와 보육프로그램-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사례연구'를 한국보육교사회 교사관람연구모임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선영 교수가 발표하였다.

보육프로그램을 위한 조사작업의 시작이 8월부터였고 연구진들도 여름부터 가을까지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너무도 힘들게 준비했다고 토로했다. 약 4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에 비해 많은 연구와 다양하고 획기적인 시도를 한 것이 두꺼운 자료집을 보아도 느껴진다. 그리고 12월 정도면 보육프로그램으로 개발이 완성되어 나온다는 계획이라니 보육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나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면서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의무감마저 들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많은 내용을 제한된 시간내에 진행하고자 되도록 짧고 간략하게 발표하다보니 연구자의 깊은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토론자들도 내용의 숙지와 보완보다는 기존의 연구물에 맞추어 평가하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분야와 유아교육분야가 만나 복지의 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육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초기의 기획된 의지에 비해 매우 방대하고 심도 깊은 연구의 기간으로는 너무 시간이 부족한 듯했고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보급하기 이전에 한국의 보육현장의 상황-교사, 보육시설의 상태, 부모의 상황, 보육시설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일부를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의 내용으로 아동육구조사 부모육구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 평가할 수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조사, 그리고 10년간의 보육활동중 현장에서 나름대로의 보육육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행되었던 프로그램의 조사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번 보육학회에 참가했던 보육현장 관계자라면 6가지의 주제발표의 내용중 제시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어서 특별히 신선하게 와 닿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연구작업 특히 프로그램 연구작업은 반드시 현장성을 견지해야 하며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 프로그램 개발은 그 의도와 달리 보육현장에서 외면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보육현장의 교사들은 교수활동에 있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에 목말라 있다. 유치원 교육활동 자료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보호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보육하는 사람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보육 교유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에서 보육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고 싶어한다.

'97추계학술대회의 주 내용인 보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와 발표는 보육의 유일한 학회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연구내용에 있어서의 현장성 담보, 유아교육분야의 협력 등이 조화롭게 녹아든다면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교수님이 남들 휴가 떠나는 여름도 반납하고 연구에 매진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보육현실은 아직도 많은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면에서 참 공감이다.

어린이와 환경

'어린이와 환경' 국제학술대회 참가기

조인숙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지난 11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삼성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제5회 국제학술대회가 서소문에 있는 호암아트홀에서 있었다. 주제는 '어린이와 환경'으로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내용들로 짜여진 것이다. 예년의 국제학술대회의 규모나 내용을 경험한 탓에 이번에도 내심 기대가 되었다. 규모도 규모지만 물리적 환경에 대해 유아교육관련 학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는 것은 처음이고 특히 유치원의 관점이 아닌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코스텔닉(Kostelnik)박사가 초청강연을 한다기에 더욱 그랬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지 참가자들은 1, 2층을 가득 메웠다.

"조인숙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학교를 졸업하고는 한번도 만날 수 없었던 학교 동기가 그곳에 있었다. 그동안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소홀히 했던 지인(知人)들, 학교 은사님, APT 교육을 함께 받은 선생님, 어린이집 원장님, 대학원 후배 등등 소식이 궁금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서 소식도 알게 되니 나로서는 여러모로 어찌되었든 좋은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로비에는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몇 어린이집의 모형과 실외놀이장을 위한 교구들, 특히 물을 이용한 놀이를 풍부하게 하는 교구들이 전시되어 있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였다.

이번 학술대회도 예년과 같이 이틀에 걸쳐 치루어졌는데, 첫날인 3일(화요일)은 네덜란드 아이트호벤 공대 교수인 안델(Joost van Andel)박사께서 기조 강연을 하였고 '좁은 실외놀이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강연하기로 한 Frost박사의 원고를 이은해 교수께서 대독하였다. 그리고 오후에는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이연숙 교수가 그동안 연구해 온 '어린이집 실내공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다음날인 4일(수요일)에는 코스텔릭 박사께서 '실내환경의 중요성'에 관해, 그리고 오후에는 신동주 교수의 '실외놀이환경 변화가 유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의를 하신 분들의 강의 솜씨 때문인지 아니면 아트홀이라는 대회장 분위기 때문이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루함 없이 부드러운 정서로 어려운 내용을 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코스텔릭 박사는 외모에서 풍기는 정겨움과 자상함에 깔끔하고 낭만한 목소리로 참가자들을 주목시켰으며 점심식사 후에는 직접 참가자들과 머리, 어깨, 무릎, 발이라는 노래와 율동을 함께

하면서 참가자를 참여시키면서 이끌어 갔다. 그리 날씬하지 않은 무거운 몸매, 게다가 미시건 주립대학 교수에, NAEYC(미국유아교육협회) 부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위를 가진 분이 호흡을 가빠 하며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무게 있는 교수들에게서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라 눈물겹기까지 하였다.

참가하지 못한 선생님들을 위해 이틀간의 학술대회 내용을 세세히 말씀드려야 하지만 지면이 허락하질 않으므로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정리해 보겠다.

기조 강연을 한 안델교수는 아동의 보육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과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Eindhoven)에 있는 미노에스(Minoes)어린이집과 테르하이젠(Terheijden)유아학교의 실태를 살펴본 후 보육시설의 환경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제언을 하였다. 그는 보육시설의 건축가와 설계자들, 그리고 보육시설의 관리운영자, 교사 및 직원들을 구분하여 제언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가지가 있다. 영유아를 위한 낮잠 공간을 설계하는데 있어 청각적으로는 분리하되 교사들의 시선을 항상 받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는 연결되도록 구성하라는 것과 어른들이 사용하는 부엌 외에 어른들의 감시하에 어린이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엌을 만들어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 잘 설계되고, 잘 지어진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 따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 및 관리자 등이 아동의 수, 구성 등에 따라 융통성있게 최대한 모든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프로스트 박사는 보육시설의 환경 중 실외놀이터가 아동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역설하였다. 실외놀이는 실내놀이에서 할 수 없는 커다란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아동의 운동기술을 향상시키고,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 상호간에도 실내에서와는 다른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게 된다. 실외놀이장은 다양한 느낌을 주는 표면(잔디, 흙, 시멘트, 모래등)과 돌, 플라스틱, 쇠, 나뭇잎, 그리고 각종 식물, 채소밭, 동물 등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보다 더 다양한 재료들로 제공하게 된다. 자전거, 바퀴 달린 손수레, 연장, 기타 실외게임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도구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개 실외놀이터 하면 모래가 깔려 있고 미끄럼틀과 그네, 시이소 등 몇가지 덩치 큰 놀이기구가 있으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외놀이터는 실내환경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그 크기와 환경이 다르게 요구된다. 영아들의 경우는 비교적 작고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단순하고 감각운동적 자극에 적합한 것을 반복하여 놀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되어야 좋다. 미끄럼틀의 크기, 그네의 크기 등도 물론 영아에 맞게 더 작아야 한다.

2,3,4세의 어린이들에게는 대근육운동, 반복적 놀이 모두 몰두하게 되나 상상놀이와 구성놀이가 풍부해지므로 상상놀이를 위한 놀이집과 탈 것, 물놀이대와 각종 소도구, 그리고 구성놀이에 필요한 연장, 나무, 블록, 모래, 물 등이 필요하다.

4,5세경에는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잔디 덮힌 마당, 공놀이 골대 및 단단한 흙표면 등이 필요하다.

프로스트는 아동의 실외놀이공간이 단순히 '기준에 맞고', '발달에 적합하고', '고도의 기술로 제품화되고', '설계'될 뿐 아니라 '자연의 요소'를 담고 있고, '기쁨'을 주고 '특이'하며 '풍부한 자료'로 가득한 곳인 마술적인 놀이공간(Magical Playscapes)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마술적인 공간을 만드는 기준으로 크기의 다양성, 다양한 생물체, 실제성, 분위기, 선과 모양의 다양성, 감각적 자극, 특이성, 대비되는 특성, 과거의 시간과 공간과의 연계성, 위험부담, 단순한 연장, 자연의 요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곳 등 13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몇가지 내용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아동을 위한 실외놀이터는 작은 모형인형, 벌레, 장난감 기차, 신체크기에 맞는 자동차 등을 주어 자신감과 통제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거인, 공룡, 실물크기의 기차, 비행기 등은 '굉장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크기에 있어서 다양성을 살리도록 한다. 또한 과자로 만든 사람에서부터 상상놀이를 재현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와 생물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아동은 모조품보다는 진짜 바퀴, 운전대, 부모가 쓰던 연장 등 실물을 더 좋아하므로 잘 만들어진 놀이감 외에 실제 사용하는 물건이나 폐품을 제공하고,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새롭게 만든 것(예: 타이어로 만든 거대한 공룡),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제공해줌으로서 새로운 것과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등나무 그늘, 연못, 노천극장 등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촉감이 다른 바다, 냄새와 색깔이 다른 화초, 모래밭, 동물의 소리 등 아동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아동의 놀이 공간에 매우 위험한 것은 곤란하지만 약간의 위험부담은 놀이에서 필요하며 안전기준 내에서의 이러한 위험부담(경사가 급한 미끄럼, 조금 벅찬 기어오르기, 균형 잡기, 연장으로 정원가꾸기 등)과 실수를 통해 아동은 배운다.

그는 만일 놀이터가 좁아서 소수의 설비밖에 둘 수 없다면 나무, 물, 모래와 같은 자연공간과 실외놀이감을 보관할 작은 창고를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빈틈없는 일과와 생활에 쫓기면서 사는 요즘아이들에게 아이들 마음에 맞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놀 자유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낼 수 있는 곳, 나무 그늘 밑, 개구리 뛰노는 연못에서 잠시 일상생활을 멈추고 생각해 볼 여유를 주며 주변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개구리가 뛰어 놀지는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날 신동주교수의 발표내용은 프로스트의 강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증해 보여주었다. 신동주 교수는 실외놀이터의 환경변화가 유아의 전반적인 놀이행동이나 인지 사회적 놀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환경 보수계획이 진행중인 I삼성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 실외놀이 환경을 계획하고 구성하여 변화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옆집을 사서 부지를 마련하고 새로 만들어질 실외 놀이공간을 전문가, 교사, 그리고 아동의 견해를 들어서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과 그 안에서 유아들의 행동과 행동의 변화 등을 통해 주어진 공간에 어떤 놀이감이 얼마나 배치되는 지에 따라 유아의 놀이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스텔릭 교수는 실내환경에 관해 아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그리고 쉽게 접근하여 유아교육

을 위한 실내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은 어른과는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본다. 어른들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것만을 추구하는데 반해 아동들은 벽과 소파 사이의 각진 구석에 매료되고, 회반죽이 묻히고 울퉁불퉁하고 구멍난 벽이나 바닥 등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장소와 모양, 느낌을 좋아한다.

따라서 아동을 위한 실내환경은 아동의 시각에서 보려는 자세와 그들의 의견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현장에서 하루종일 함께 생활하는 현장교사들을 위한 고려와 요구가 반영된 환경이어야 한다.

그녀는 물리적 환경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즉, 아동들 입장에서 잘 구성된 환경은 '너희는 중요한 사람이다.' '너희는 특별한 사람이야.' 반대로 켜켜한 냄새가 나고 썰렁한 교실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이것은 그 환경이 아동에게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은 환경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꽤 정확하게 인지하며 잘못된 환경은 아동을 혼란에 빠트리거나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연숙 교수는 전문 건축 디자이너 입장에서 어린이집의 실내건축과 실내 구성을 발달학적으로 적합하면서 교육과 양육이 공존되고 생활과 놀이, 학습이 통합되며, 아동과 성인의 요구를 모두 만족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디자인 지침을 개발하고 그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을 소개하여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알아들만 하다고 생각되어 적었지만 사실 간추린 내용은 전후 설명이 없이 결론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은 나와 같은 느낌을 아닐 것이다. 어쩌면 지면만 채운 쓸데없는 짓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필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프로스트 교수와 신동주 교수의 실외 놀이환경에 대한 내용이다(물론 코스텔너 교수의 '머리, 어깨, 무릎, 발'도 인상적이지만).

우리 어른들이 자란 시절에는 특별히 실외놀이터가 없이도 주변의 다양성과 생물, '광'이나 '뒤란'과 같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자연, 모조가 아닌 실물들로 채워진 바깥 환경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만들어 주지 않아도 그러한 환경을 접할 수 있었고 그저 미끄럼틀이나 그네라는 특이한 물건만 있으면 금상첨화였다. 쉽게 말해 지금의 현실은 놀이감 외에 그밖에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 줘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른들은 미끄럼틀이나 그네와 같은 놀이기구만 있으면 실외놀이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작년에 모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환경을 구성할 때 다른 관리자들과 의견이 달라서 애를 먹었던 일이 생각난다. 무려 50명이나 되는,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실외 공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필자와 교사가 원하는 휴이 있는 공간과 모래가 있는 공간을 구분해 달라는 의견과, 영아가 놀 수 있는 공간과 유아가 놀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해 달라는 의견이 법인 관계자와 건축관계자들을 전혀 이해시키지 못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제외한 모든 곳을 그 비싼 모래로 채워 버려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고 두고 두고 잘못 만들어진 실외 놀이터 때문에 교육적인 활동을 오히려 어렵게까지 했던 일이 기억난다.

물리적 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이번 학술대회를 접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론만이 아닌 몸으로 부딪히며 연구한 흔적이 보였으며 현장의 견해를 존중하여 이상적인 모델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의 아이들 중 얼마나 이러한 혜택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을까? 서울에 있는 보육시설의 70%가 실외놀이터가 없는 곳이고 좁은 실내환경에서 우리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지 않은가?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 아동과의 관계, 그리고 이상적인 물리적 환경에 관해 고찰해 본 기회였으니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좁은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이나 실외 놀이터가 없는 시설의 아동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이런 큰 단체를 통해 연구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제4회 퍼즐퍼즐

1			2		10	11		12	
								13	
		3			4				
14	15				5		6		7
			20						
16			21	22				8	
17		18		23	24				
		19					9		

가로열쇠)

① 보육교사는 '어린이인권'을 소중히 하고 이것을 실천합니다. 교사 선언문에 나와있죠. ② 지난날, 한 집안에서 대를 이어 내려오던 종을 말합니다. ③ 5세아 무상교육 혜택대상 선정여부와 관련되어 요즘 유아교육계에 치열하게 거론되고 있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적 동질성에서 기인합니다. ④ 다나무 따위의 섬유를 써서 한국 고대의 제조법으로 뜬 종이 ⑤ 12월 18일은 ○○○선거 투표일입니다. ⑥ 우유를 살균한 뒤 유산균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식품으로 우유보다 소화가 잘 되죠. ⑦ 주인집에 고용되어 그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 요새는 개신교에서 봉사직분중 하나를 뜻합니다. ⑧ 자선이나 공익을 위하여 내는 돈. 수계○○○. ⑨ 비밀의 방법 ⑩ 민요의 가락이나 내용을 담은 형식 ⑪ 논때미에 물이 넘어 흐르게 만들어 놓은 어귀 ⑫ 섭취하는 음식물의 품질, 성분, 분량 등을 조절하여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 ⑬ 상한 음식물을 먹어 생기는 중독상태

세로열쇠)

① 조선시대에 수도 중심가에 자리잡고 왕실들의 수요를 도맡아 비단, 명주, 종이, 어물 등 여섯종류의 물건을 공급하던 이용상점으로 상품의 독점과 전매권을 행사했죠. ②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 또는 그 표현방법. ③ 본전과 이자를 일정한 날짜로 나눠 낱마다 거둬들이는 일이나 그 빚. ④ 화장실에 이기 없으면 황당하죠. ⑤ 여성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단체운영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제도. 한국보육교사회는 농협과 조흥은행에 이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⑥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 또는 구인하는 강제처분 ⑦ 편히 남의 조그만 흠집을 들추어서 괴롭게 구는 것을 말합니다. ⑧ 논리학에서,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낱날의 사실이나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 귀납법과 반대. ⑨ 칼슘과 인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아형성기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부족하면 충치유발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⑩ 노래, 춤, 신앙, 노동, 전투 따위가 모두 망라된 우리 전통의 대중놀이입니다. 11월호 현장교육에서 다른 내용이지요. ⑪ 특정음식만 좋아하고 다른 음식은 잘 먹지 않는 경향을 이르고. ⑫ 아기가 모유나 분유에서 유아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섭취하는 고형식. ⑬ 소립자(素粒子) 가운데서 전자(電子)보다 무겁고 양자(陽子)보다 가벼운 입자.

어린이건강

어린이 설사와 경련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제공 ·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겠지요.

아이들이 잦은 설사로 기운을 잃거나 잘 먹지 못하면 어른들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간혹 열감기에 걸려 경련이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기도 합니다.

인의회에서 이번달에는 어린이 설사와 열성경련에 대해 '우리네 아이들' 독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이 벌어져도 이전 아이에게 어떤 응급 조치를 해줘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 한숨 놓이지요?

설사시 주의해야 할 사항

성인은 토하거나 설사를 해서 몸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 나간다 할지라도 몸안에 남아있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탈수증상이 잘 오지 않으나, 아이들은 몸안의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토하거나 설사하여도 탈수증상이 쉽게 오게 됩니다. 즉, 성인들은 1리터를 설사해도 인체에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10kg의 아이인 경우에는 1리터를 설사하

게 되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장염증상이 발생하면 잘 먹지 못하고 열이 발생해 탈수가 더욱 잘 오게 되며, 탈수가 오면 더욱 안먹게 되고 면역이 감소되어 감염이 치료가 잘 안될 뿐 아니라 탈수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탈수가 발생하면 체내에 독성성분이 축적되게 되고, 전해질 성분에 불균형이 와서 신체의 각 부분에 악영향을 주거나 경기(경련)를 할 수 있으며, 심하면 땀샘, 뇌, 심장, 간 등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장염이나 탈수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설사할 때는 설사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탈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설사는 대부분의 원인이 바이러스이며, 세균성이라 할지라도 탈수 예방만 제대로 해주면 특별한 치료없이 자연히 치료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설사 치료보다는 탈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설사할 때 보리차만 먹어야 하는가?

아이가 설사를 할 때 젖이나 우유를 먹이면 설사가 더 심해진다고 해서 장을 쉬게 한다는 목적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며칠동안 보리차만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시키고 보리차만 먹이면 설사는 분명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설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이 적기 때문에 대변으로 나오는 양이 적어서 설사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한참 성장하는 아이에게 보리차만 먹이면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섭취에 문제점이 있으며, 급성 설사증이라도 금식시키지 않고 젖이나 우유를 먹이면 많게는 60%까지 우리몸에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또한 보리차만 먹여서 장을 쉬게 하는 것이 특별히 설사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오랫동안 금식을 시키면 장의 기능이 떨어져 나중에 영양분 흡수에 장애를 주며 설사 증상이 회복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설사할 때는 절대 오랫동안 금식을 시키지 말고 4-6시간만 보리차나 전해질용액(약국에 있음)을 소량씩 자주 먹이며 그 후부터는 젖이나 우유를 바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 중간중간에도 보리차, 전해질용액을 계속해서 먹이는 것이 좋으며 시판되고 있는 탄산이온음료, 과일쥬스 등은 당 함량이 많아서 삼투질 농도가 높아져 설사 및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먹여서는 안됩니다.

아이가 토할 때도 금식을 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아이가 토한다 할지라도 보리차를 조금씩 자주 먹이면 전부를 다 토하지 않고 상당량이 흡수되어서 탈수를 예방 및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토할 때에도 너무 오랫동안 금식을 시키지 말고 보리차를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할 때 모유는 어떻게 먹이는가?

젖을 먹이던 아이가 설사한다고 젖을 끊고 우유를 먹이거나 특수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있으나 설사를 하더라도 젖을 그대로 먹이면서 젖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아이가 설사할 때 평소처럼 젖을 먹이면 위장에 부담이 되어 소화흡수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처음 2분동안에 1/2을 먹고, 4분이 지나면 80%를 먹기 때문에 평소처럼 먹이면 5분 정도가 지나면 원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설사할 때 젖을 끊지 말고 젖을 계속 먹이되, 수유시간을 처음에는 2-3분으로 시작해서 3-4시간 간격으로 1-2분씩 늘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1-2달은 엄마 젖을 먹일 때 아이의 대변은 설사하는 것처럼 보이나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므로 젖을 끊고 우유를 먹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설사할 때 우유는 어떻게 먹 이는가?

우유를 먹이는 아이가 설사할 때는 위장에 부담을 줄이고 수분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분유를 연하게 희석해서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평상시보다 1/4로 희석하여 소량씩 자주 먹이고, 설사 증상이 조금 호전되면 1/2로 희석해서 먹이며 점차 양도 평상시처럼 증가하면서 먹입니다. 이 기간중 부족한 양은 전해질 용액이나 쌀로 만든 미음, 희석한 주스로 보충해 줍니다.

우유가 맞지 않아서 설사할 수도 있으나 설사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호프나 MF등의 특수분유를 사용하지 말고 일단은 일반분유를 희석해서 먹여보고 효과가 없을 때 특수분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사를 하면 장의 기능이 떨어져 소화흡수에 장애를 가져오고 수분 및 전해질이 결핍하게 되어 영양결핍이 오기 쉬운데 설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소화흡수가 잘 되고 설사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강한 특수분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가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수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분유는 설사하는 아이에게 더 넣을 것은 넣고 뺀 것은 빼고 가공한 제품이어서 건강한 아이에게 오랫동안 먹이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으므로 2-3일동안 설사를 하지 않으면 일반분유를 점차적으로 섞어가면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설사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는?

아이가 장염이 있으면 열이 발생하고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브리차를 자주 주고 우유를 희석해서 먹여도 먹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양이 많게 되어 탈수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탈수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집에서 브리차, 전해질 용액, 기타 수분을 먹이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려 볼 수 있지만 탈수증상이 심하면 입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맥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탈수시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입이 마르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대천문(숨구멍)이 들어가고, 아이가 축 처지면서 잠만 자려고 하며, 소변 보는 횟수가 뜸 떨어지고, 몸무게가 빠지게 됩니다. 이중에서 탈수의 정도를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몸무게의 변화인데 10% 이상이 감소되면 심한 탈수를 의미합니다. 즉 10kg이던 아이가 9kg으로 줄게 되면 심한 탈수로 생각하고 병원에 가야합니다.

또한 탈수가 오면 몸안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서 우리 몸안에서는 수분을 조금이라도 저장하기 위해 소변이 적게 나오게 되는데 소변 보는 횟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경우에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아이가 탈수가 되면 기운이 떨어져 축 처지게 되는데 아이가 하루종일 잘 먹지 않고 잠만 자려고 하고 흔들어 깨워도 잘 반응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설사가 있으면 구토증상도 동반되기 쉬운데 토하는 증상이 심해서 전혀 먹지를 못하

면서도 설사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유행성 설사에 대하여(가성 콜레라, 바이러스성 설사)

매년 늦가을과 겨울철에 유행성 설사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입원환아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유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물설사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인데 과거에는 원인을 몰라서 가성콜레라라고 불렀으며, 의학적인 용어로는 로타(Rota) 바이러스 장염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6개월 - 24개월 사이의 아이에게 잘 발생하며 주로 춥고 건조한 늦가을부터 겨울철(10-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중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염경로는 대변에 있던 균이 음료수, 음식, 손을 통해 입으로 전파되며, 공기 중에 있는 균이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1-3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감기 증상이 있다가 1-2일 토하면서 갑자기 물처럼 설사를 하게 됩니다. 열이 동반될 수 있으며 물설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탈수 증상이 동반되며, 녹색, 황색, 또는 쌀뜨물같은 물 설사로 평균 하루에 7-10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주일 이내에 회복됩니다.

치료는 원인균이 바이러스라서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자연 치료되므로, 대증요법이 필요합니다.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브리차 등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대증요법이 중요하며, 장운동 억제제, 흡착제 및 지사제 등의 약물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해로운 경우도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전염력이 아주 높기 때문에 설사 환자가 있을 때는 아이와 같이 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설사 발병후 3-4일간에 전염성이 가장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오염된 물체, 음식물, 음료수, 하수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설사할 때 모유는 어 떻게?

우유를 먹는 아이가 설사를 할 때는 아이의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수분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우유를 연하게 희석해서 먹이거나 특수분유를 먹입니다.

그러나 모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조금씩 자주 먹이면 상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모유를 중단할 필요없이 계속 먹이되 수유시간을 2-3분으로 줄여서 자주 먹여야 합니다. 아이가 젖을 먹일 때 처음 2분 동안에 50% 정도를 먹게 되고 4분 동안에 80-90%를 먹게 되며 10분 후부터는 빠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 자주 먹일 목적으로 5분 정도 빨리게 되면 아이는 벌써 모유의 90% 정도를 먹게 되어 원래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유수유시 아이가 설사를 할 경우에는 모유는 제한할 필요없이 계속 먹이되 수유시간을 처음 2-3분으로 시작해서 3-4시간 간격으로 1회 1-2분씩 수유시간을 증가시켜 가야 합니다.

젖을 먹일 경우 생후 수주동안은 변이 설사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모유의 조절 없이 그대로 먹이면 됩니다.

설사할 때 분유는 어떻게 먹 이는가?

아이가 설사할 때 아이에게 젖이나 우유를 주지 않고 며칠동안 보리차만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할 때 보리차만 먹이면 설사가 줄어들고 우유를 계속 먹이면 설사가 심해지는(?) 현상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따름이며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보리차만 먹이면 당연히 설사가 줄어들지만 이것은 설사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기 보다는 먹은 음식이 적어서 설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설사할 때 음식을 시키고 보리차를 오랫동안 먹이게 되면 설사의 증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질지는 몰라도 한참 성장하는 아이에게 영양의 문제점이 있고 설사의 원인이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회복이 느리며, 보리차만 먹여서 장을 쉬게 한다는 것이 설사에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설사를 하더라도 우유를 계속 먹이면 우유가 흡수되지 않고 설사로 모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은 음식의 60%까지도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어서 음식으로 인한 영양장애도 없고 장염에서 쉽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급성설사시에 장기간 보리차를 먹이는 것은 좋지 않으며 4-6시간 정도만 보리차나 포도당-전해질 용액(약국에 있음)을 먹고 그후에는 우유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를 먹일 때에도 정상적으로 타서 먹이지 말고 처음에는 1/4로 희석하여 소량씩 자주 먹이고, 설사가 심해지지 않으면 1/2로 희석해서 먹이고, 1-2일 동안에 걸쳐 점차

우유의 양과 농도를 높여줍니다.

우유가 맞지 않아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설사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수분유를 먹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유를 희석해서 먹여보고 설사가 지속되면 특수분유를 먹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사시에는 탈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먹이는 사이사이에 보리차나 쌀로 만든 미음, 희석한 주스 등을 주는 것이 좋으며, 시판되고 있는 탄산이온음료, 과일주스 등은 당 함량이 높아서 오히려 설사를 더 악화시키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설사시 아이의 상태에 따라 먹이는 것도 다를 수 있으므로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소아과외사의 진료후에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열성경련이란?

열성경련이란 열이 있으면서 경기(경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뇌가 성숙되지 않아서 열이 발생하면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데 처음 경험하는 엄마들은 아이가 곧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척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단순 열성경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없으며 뇌성마비 등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성인은 열이 있어도 경련을 일으키지 않으나 아이에게 열이 있을 때 경련을 일으키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성장중에 있는 대뇌세포가 고열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성경련은 열이 있는 아이의 4-5%에서 발생하며 대개 3개월에서 5세 사이에 발생하는데 특히 15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아이에게 잘 발생합니다.

경련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손발을 떨며 얼굴이 새파라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아이가 물다가 의식을 잃고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숨을 못쉬고 새파라지고 팔다리를 규칙적으로 떨게 되는데 경련이 끝나면 잠이 들거나 축 쳐지게 됩니다.

열성경련의 원인은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가장 많으며 그외에 중이염, 장염 등의 염증 때문에 많이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디피티, 소아마비, 홍역 등의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뇌수막염 때문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뇌수막염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설사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열성경련 자체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이에게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아이에게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하면서 무엇보다도 아이의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경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련후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련할 때 대책에 대하여

경련 자체는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 거의 없으므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예방적 조치와 경련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관찰하는 것이 병원에 갔을 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 조용히 한다.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하며 경련중에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므로 반드시 아이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도 말고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2) 아이를 붙잡지 않는다.

경련을 멈추게 하려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꼭 붙잡으면 오히려 경련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우거나, 흔들거나, 업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약을 먹이지 않는다.

경련을 할 때 기온환을 먹이는 경우가 많으나 도움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가 약을 삼킬 수가 없고, 경련중에는 호흡이 불완전해서 약이 기도으로 넘어가 오히려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경련중에는 기온환을 포함해서 일절 입안에 약을 넣어주면 안됩니다.

4) 입안에 물건을 넣지 않는다.

아이가 숨을 잘 쉬게 한다는 목적으로 입안에 손가락을 넣거나 다른 물건을 넣는 경우가 있으나 도움도 안될 뿐 아니라 상처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안에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 합니다.

5) 입안의 음식을 치우고 편안하게 해준다.

입안에 음식이 있으면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입안의 내용물을 모두 치워주고 아이를 비스듬히 눕히고 머리를 약간 아래쪽으로 한 다음 의복을 풀어주어서 편안하게 해줍니다.

6) 외부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주위의 날카로운 물건이 있거나 뜨거운 것이 있으면 아이가 경련중에 다칠 수 있으므로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정리하고 침대에 있는 경우에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7) 경련의 상태를 관찰한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당황하게 되어 경련할 때 상태를 잘 기억하지 못해서 병원에 데려와도 아이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경련을 했을 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옆에 있었던 사람 뿐이며 병원에 데리고 왔을 때 경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검사 및 치료의 방향이 정해지므로 경기의 형태 및 시간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전신적으로 양쪽 손발을 다 펼었는지, 국소적으로 한쪽 손이나 발만 펼었는지, 아이가 떨지 않고 힘이 들어가거나 축 쳐지기만 했는지, 눈은 돌아갔는지, 의식은 바로 돌아왔는지, 몇분 정도 지속됐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찰도중이라도 만일 10분 이상 지속되는 더이상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합니다.

8) 경련후에는 조용한 환경이 되도록 한다.

이 사항은 열성경련이 아니고 열이 없이 경련을 일으키는 간질이 있을 때 해당하는 사항이며 경련후에 아이가 피로하고 예민하며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과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열성경련인 경우에는 경련후 바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련시 주의할 점=경련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열성경련은 원인이 대부분 감기 등의 호흡기 감염이며 대부분의 경과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나 열성경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위에서 아이들이 열이 나면 경련을 잘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들을 바도 있고, 또 자기 아이가 열이 있어서 몇번 경련을 한 경험도 있고 그때마다 별 문제없이 잘 지나간 경우에 특히 실수하기 쉬운데, 아이가 이상한 형태로 경련을 하거나 이상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병이 아주 심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 열 때문에 경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한 병을 앓고 있을 때 경련을 할 수 있으므로 경련후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1) 하루에 2번 이상 경련을 하거나,

2) 10-15분 이상 경련을 하거나,

3) 한쪽 다리나 한쪽 팔만 경련을 한 경우,

4) 토하고 설사하면서 축 쳐지는 경우

에서 한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뇌막염이나 전해질 이상 등 다른 질병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성경련과 다른 질병을 구별하는 것이 소아과 의사들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척추에서 물을 빼내서 뇌막염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4가지 증상이 없는 평범한 경련이었다 할지라도 집에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어떠한 형태의 경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열이 나서 경련을 한 경우에는 입원할 필요는 없으나 의료의 혜택을 신속히 받지 못하는 지역이거나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열성경련의 예후에 대하여

경련을 하면 엄마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아이의 뇌에 영향을 주어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다음에 열이 나면 다시 경련을 하지 않을까? 나중에 간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1. 아이의 뇌에 영향을 주어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아이가 경련을 한다 할지라도 뇌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30분 이상 경련

을 하면 뇌손상이 온다고는 하지만 단순 열성경련인 경우에는 30분 정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몇번 경련을 했다 할지라도 뇌에 손상이 오거나, 머리가 나빠지거나, 학교가서 공부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은 일단 안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다음에 열이 나면 다시 경련을 하지 않을까?

열성경련이 있는 후에 재발할 가능성은 30% 정도입니다.

그러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 1) 가족중에 간질이나 열성경련이 있을 때
- 2) 15분 이상 또는 하루에 2번 이상 경련을 하거나, 국소성 발작인 경우
- 3) 1세 이내에 경련이 있을 때 등이며, 특히 나이가 어릴 수록 재발 확률이 높습니다.

경련을 자주 하는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열이 나면 열 자체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열이 있을 때 해열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열이 올라가는 것을 항상 막을 수는 없고 어떤 경우는 열이 나기 전에 경련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열 자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이가 열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열이 나면 가능하면 빨리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에 방문해서 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간질이 되지 않을까?

열성경련후 간질 발생 가능성은 2-7%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성경련후 93-98%는 간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

습니다.

그러나 간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 1) 첫 열성경련 이전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있거나
- 2) 부모, 형제 중의 간질환자가 있거나
- 3) 15분 이상, 하루 2번 이상 국소성 발작인 경우입니다.

4. 일반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는가?

예방접종 때문에 경련을 할 수 있는데 열성경련의 시기가 대부분 5세 이하이어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방접종 중에서 DPT와 홍역은 접종후에 부작용으로 열이 나며 경련을 할 수 있는데 아이 상태에 따라 다음부터는 접종 금기가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시에 과거의 경련사실을 소아과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열성경련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DPT 접종 후에는 2-3일간, 홍역 접종 후에는 접종후 1주일 후부터 2-3일간 해열제를 예방적으로 먹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열성경련의 예방에 대하여

열성경련을 예방하는 것은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감기에 잘 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투여하고 빨리 근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성경련은 후유증이 거의 없고, 예방약을 먹인다 할지라도 향후 재발이나 간질의 예방에 큰 효과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먹여야 하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가능하면 예방약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1) 열성경련 이전에 신경학적 발육이상 이 있는 경우
- 2) 첫 열성경련이 15분 이상, 하루에 2번 이상, 국소적일 때
- 3) 부모가 경련에 대해서 과민반응 및 심리적 안정을 잃는 경우
- 4) 신속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과 격리된 지역에 사는 경우
- 5) 경련발작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예방약을 먹이는 방법은 항경련제를 2년 정도 매일 투여하거나, 열이 있을 때만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약의 종류도 다양하고 약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보고

중간간부 훈련을 다녀와서

이경녀 · 서울 씩씩이어린이집

감마 마케팅 훈련!

하반기 중간간부 훈련 내용이 '감마 마케팅 훈련'이란 얘기를 듣고, 평소 '마케팅이란 기업의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한 경영 전략'이란 편견 아닌 편견으로 못마땅해 하던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조직의 부름을 받았기에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중간간부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16일은 높은 자리-봉천지역의 4명의 처녀들이 모여 사는 3층 옥탑방-이사날이라 영동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영동에서 내려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길에는 감나무들이 죽 늘어 서 있었다. 거의 앞들은 다 떨어지고 까치밥 몇 개 정도 남아 있는 감나무들이 쓸쓸한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문득 어느 감나무 한 그루만은 잎이 다 젖음에도 불구하고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다 못해 농익은 감이 땅에 떨어져서 동게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 모처럼 가을 기분 좀 잡으려 했더니 이게 웬 일? 주위를 둘러보니 그 나무 뒤쪽에는 파출소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순간 피식 웃음이 나며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다소 가벼워졌다.

버스에서 내려 옥계폭포로 가는 중간 길에 자리잡은 여성농민 쉼터는 그야말로 가을의 한가운 데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기차에서 내려 파출소 앞 감나무를 보고, 버스에서 내려 쉼터를 찾아 가는 길목에서 웬지 이번 훈련은 잘 오고야 말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1시에 시작 예정이던 훈련 일정은, 조금씩 늦게 온 사람들과 일찍 왔어도 주위 풍경에 유혹을 받고 엉덩이를 들쭉들쭉 하는 몇몇 아줌마들(죄송) 덕분에 옥계폭포-이영숙 선생님의 물이 없을 거라던 걱정이 있었으나 한국보육교사회가 영동에 땀다는 걸 알았는지 폭포물이 확확 내려오고 있었다. -까지 산책을 다녀와서야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번 중간간부 훈련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감마 모델 8가지 유형을 통해 진단해본 우리 조직"이라는 주제로 15, 16일 1박2일동안 임남희 부회장을 감사로 모시고, 맛있는 사과-사실 영동은 꽃감으로 유명한데 꽃감은 구경만 하고 왔다와 작은 폭포를 볼 수 있는 영동 옥계에서 진행됐다.

감마 모델은 오스트리아의 Ludwig Kapfer가 개발한 총체적 마케팅 경영 모델로 하나의 기관 운영에 있어 방법적인 면에서 기관을 조직적, 체계적,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모델이면서 각 조직체의 정체감과 미래상을 찾아가는 모델이다. 한마디로 비영리단체를 위한 마케팅 경영 모델이다.



← 옥계폭포로
산책 갔다가.

감마 모델은 '흐름의 모델'이며 이는 상황을 분석하고 시장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설립 목적과 통합된 정체감, 통합된 디자인, 그리고 경영원칙을 만들어 내며 공급물을 개발하고 발달을 미리 예측하고 변화된 시장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마 모델의 모토는 ① 당신의 신념대로 살라 ② 고객을 사랑하라 ③ 당신의 협조자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라 ④ 당신의 주변 환경을 명심하라 등으로 이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감사님이 강조한 것은 '고객의 신발을 신고 걷자'이다.

또한 감마 모델의 8가지 유형은 기관의 철학, 프로그램의 질(생산품), 직원의 자질, 외부와의 의사소통, 내부 의사소통, 조직의 질,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회적 매력 등이다.

감마 모델에 대한 소개는 대략 이 정도이며 나로서는 더 설명하려 해도 실력이 짧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에서 훈련 받은 교사에게나 아니면 부회장님께 문의하기 바란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의 개괄적인 설명으로부터 시작한 훈련은 여러 가지 주제-동기(motive), 조직에서 어려웠던 점, 우리 조직의 철학, 우리의 차별화된 상품, 조직 구성원을 신체 부위로 표현하기 등-로 조별 워크샷, 매타플렌 방식 등을 적절히 활용해 지루하지 않고 너무 심각해서 숨막히는 분위기가 아닌 편안하면서도 나올 얘기는 다 나오는 자연스런 과정이었다.

이 훈련 동안 처음에는 고객이니 경영, 직원, 생산품 등 주로 기업과 관련된 용어에 익숙치 않아 낯설이 돌기도 했지만 다른 면에서 내가 얼마나 내 생각, 내 입장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으며, 우리가 상대하려는 고객(부모, 아동, 다른 보육교사, 지역사회)의 입장을 얼마나, 그들의 욕구를 얼마나 수용하려 했었는가 하는 반성도 들었다. 그리고 지역에 돌아가서는 항상 딱딱한 회의의 틀을 벗어나 훈련에서 배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미있고 신나는 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우리 조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 우리의 것을 개발하고 알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중요 과제로 남아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통 무엇이든 1박으로 진행될 때 빠질 수 없는 약방의 감초가 뱃풀이 시간이다. 밤 11시가 넘어서면서 머리 회전도 안되고 허리가 뻐그덕 뻐 때쯤 훌륭하신 감사님(너무 아부가 심하다)의

신속한 진행 덕에 일정도 밀리지 않고 뱃풀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대개 다른 M.T 등을 가면 뱃풀이 시간은 의례 부어라 마셔라 연속이며 고주망태로 끝을 보기 쉽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뱃풀이는 달랐다. 국공립보육교사회의 이윤경 선생님이 준비해 온 게임덕에 허리가 휘어지고 눈물이 끊이지 않는 웃음의 감동을 맛볼 수 있었다. 또 사무국장님의 아름다운 몸(?)으로 표현하는 가지 많은 나무를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뱃풀이가 식상하고 지루한 분께는 이윤경 선생님을 권하고 싶다. 물론 최순옥 사무국장님과 세트로 말이다. 분명 후회없는 선택이 될거다.

다음날 시원한 콩나물국으로 해장한 우리는 Moderation이라는 다소 생소한 작업으로 훈련과정을 모두 마쳤다. 돌아오는 길에는 저마다 사과 한 박스씩 들고 가을 풍경과 아쉬운 작별을 하며 버스에 올랐다. 우리들이 버스에 오르자 승객 한 분이 의아해 하며 하시는 말, "영동에는 꽃감이 유명한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내게 있어 처음 출발은 매끄럽지 못했던 이 훈련과정이 비록 1박의 짧은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시각과 서울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충전의 기회가 되었다. 이제는 배운 것들을 어떻게 체화시키고 지역에서 활용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았지만 평소 먹은 음식을 잘 체화시키는 나로서는 남은 과제를 잘 풀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번 감마 마케팅 훈련의 강의 준비를 무척 열심히 하신 임남희 부회장님, 맛있는 밥과 이런 기회를 제공한 최순옥, 박정애 선생님, 그리고 멋진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영숙 선생님께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 이번 중간간부 훈련에 참석한 일꾼들.



교통교육

미취학 어린이용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건강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부설 시민교통환경센터
서울 YMCA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건강 싶은 거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모여 만든 비영리 시민단체 '건강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부설 시민교통환경센터에서 '어린이에게 안전한 도시만들기' 활동의 일환으로 미취학 아동용 교통안전교재를 발행하였습니다. 보육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기에 교재 전문을 실습니다. 교육활동과 부모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더 없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의 목표

교통안전 교육의 목표는 교통사고로부터 스스로의 몸을 보호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생활 주변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서는...

① 부모님은 어린이의 거울입니다 :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은 가르치는 내용이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들도 항상 가르친 내용 그대로 행동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배운 교통규칙이 상황에 따라, 또는 부모님의 행동에 의해 일관성이 없다면 어린이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게 됩니다.

② 단순한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

어린이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가르친다면 교육효과는 떨어집니다. 어린이의 인식능력을 고려해 한 번에 한 가지씩, 간단한 것에서 점차 복잡한 행동으로 지도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행동이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③ 개개인의 인식능력을 고려합니다 :

어느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통안전 교육도 집단 속에서 획일적으로 지도하면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취학 어린이의 경우 개개인의 개성과 심리상태, 행동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반드시 개개인의 성격과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지도로 어린이 스스로 지도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반복과 연속이 필요합니다 :

교통안전 교육은 숙지한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 연속하여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도록 합니다 :

어린이들이 올바른 교통행동을 했을 경우 반드시 칭찬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도록 합니다.

⑥ 절대로 어린이 혼자 길에 보내지 않습니다 :

어린이들이 사물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혼자 길에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교통상황은 어린이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보호자와 함께 길을 다니도록 합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책자를 이용하는 방법

어린이들의 주변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기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합니다. 또한 자동차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위험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조심 해라"라는 말보다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를 걸으면서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부모님이 어린이와 함께 행동하면서 교통안전규칙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열의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책자는 부모님이 먼저 보시고 난 후, 어린이와 함께 주로 이용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직접 길에서 실습을 시켜주세요. 이때 반드시 교통상황과 이에 따른 행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어른들의 태도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어른들, 차도에 내려서서 걷는 어른들, 그리고 신호등이 초록불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자동차들로 인해 어린이들은 자신이 배운 교육내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통안전 지도서는 바로 부모님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미취학 어린이의 교통사고 특성

1996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1996년 한해동안 858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32,600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습니다. 이는 5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발생하였다는 결과와 동일합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어린이의 행동특성상 다양한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취학 어린이의 보행중 교통사고 현황

어린이 사망자 수에서 65.4%, 부상자의 67.5%가 보행중 발생한 사고로 보행환경의 열악성이 곧바로 어린이 교통사고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행중 발생한 사고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미취학아동이 취학아동의 두배로 연령이 적을수록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어린이가 많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미취학 어린이의 보행중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지점

보행중인 미취학어린이 교통사고의 33%가 집으로부터 1km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상 주로 이동하는 범위가 집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만큼 주택가 도로가 어린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미취학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미취학 어린이 교통사고는 보도와 차도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 횡단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외 차도 무단횡단, 횡단보도 및 보도 통행, 놀이 및 정지, 보도가 아닌 곳에서의 보행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횡단방법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I.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및 교통규칙은 왜 필요한가

복잡한 교통수단이나 교통규칙을 어린이에게 제대로 인식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교통수단과 교통규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에서부터 교통안전 교육

은 시작됩니다. 이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및 존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것을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교통수단은 혼자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종하여야만 움직입니다. 교통수단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운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안전하게 길을 걷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운전자와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를 교통규칙이라고 합니다.

교통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교통규칙이라는 단어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용어를 인식시키기보다는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II. 운전자와 보행자 / 인도와 차

인도와 차도,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교통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한 첫 출발입니다.

운전자는 달리는 차안에 있으면서 자동차를 움직이거나 서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는 보행자라고 합니다.

운전자도 길을 걸을 때에는 보행자입니다.

어린이가 길을 걸을 때 어린이는 보행자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라고 합니다.

보행자는 차도에서 걸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인도에서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골목길과 횡단보도입니다.

* 운전자와 차도는 어린이들이 자주 듣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보행자와 인도는 어린이들에게 생소한 용어입니다. 직접 길을 걸으면서 상황을 보고 난 후 쉽게 인식합니다.

III. 안전하게 걷기

미취학 어린이가 주로 접하는 도로는 집 주변의 생활도로입니다. 이 도로들의 대부분은 인도와 차도 구별이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도 사용되며, 자동차의 통행로, 주차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매우 친근한 공간이면서 또한 매우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도로에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보행하는 방법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자는 어린이의 손을 잡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어린이들이 주로 접하는 도로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1. 길에서는 뛰지 말고 걷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천천히 걷는 것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길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길에서 뛰어다니면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선 마주 오는 사람과 부딪힐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교차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딪힐 염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뛰지 말고 걷도록 해야 합니다.

2. 친구들끼리 세명 이상 손을 잡고 길을 걷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에 닥칠 때 손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세명이 손을 잡고 갈 경우 위험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을 놓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은 채로 한꺼번에 움직이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도쪽에 있던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길을 걷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등하교시 어린이들에게 길 가장자리에서 한 줄로 걷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주위가 산만하여 쉽게 대열을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나 연령에 따라 짝을 지워 준다면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도 명확해집니다.

3. 서 있는 자동차를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나 색깔을 보면 손으로 만지고 싶어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친근하고 재미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자동차 등을 손으로 만지기를 좋아합니다. 최근 자동차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난방지 시설물을 장착한 차량이 많습니다. 이런 차량은 손으로 만지거나 충격을 주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에 놀란 어린이들은 뒤나 옆으로 갑자기 물러서게 됩니다. 이때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행동을 예측하지 못한 앞, 뒤에서 오던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부딪힐 염려가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서 있는 자동차를 손으로 만지거나 발로 차지 않게 합니다.

4. 도로를 걸을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손을 잡고 걷도록 합니다.

어린이가 도로를 걸을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보호자는 어린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이 어떠한 흥밋거리를 보고 갑자기 뛰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는 담쪽으로 걷도록 하고 보호자는 도로 중앙측에서 걷습니다.

5. 길을 걸을 때에는 인도를 이용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인도에서 걷도록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도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보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공간은 인도 외에도 가드레일 등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인도나 보행자를 위한 시설물을 이용합니다. 차도에서 걸거나 장난을 치면서 인도와 차도를 오르내리면 달려오는 자동차에 부딪쳐 다칠 수 있습니다.

6. 인도라고 항상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인도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차도에도 횡단보도가 있듯이 인도에도 자동차가 이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동차를 위해 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의 턱을 낮춘 곳이 있습니다. 관공서의 출입문이 있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우선 정지한 후 인도를 이용하려는 차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 길을 걷도록 합니다.

*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 주변의 장소를 선정하여 인식시켜 줍니다.

7. 대문에서 나올 때나 골목길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살펴줍니다.

골목길 교차로는 어린이나 자동차 모두 서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이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나 골목길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우선 멈춘 다음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길을 걷도록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대문에서 나올 때에도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 시야가 가려집니다. 반드시 우선 멈춘 다음 차가 오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8.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걷습니다.

어린이들이 집 부근 도로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인도와 차도 구별이 없는 도로입니다. 최근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길 가장자리에는 항상 주차차량으로 혼잡스럽습니다. 또한 도로 양옆의 주차차량과 통행차량에 의해 보행공간은 매우 협소합니다. 이곳은 보행공간의 협소와 어린이들의 돌출행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가장자리를 이용하게 하며, 주차된 차량이 많을 경우 주차된 차량 옆에서 걷도록 합니다. 도로 중앙으로 길을 걸으면 앞, 뒤에서 오는 차량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9. 자동차가 오면 길 가장자리에 멈추어 서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합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를 걸을 때 자동차가 오면 어린이들은 길 가장자리에 멈추어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한 후 걸어갑니다.

IV. 안전하게 횡단하기

어린이 교통사고 과반수 이상이 도로를 횡단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횡단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길을 건널 때 주위를 잘 살피고 난 후, 항상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잘 살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횡단을 위한 방법과 함께 이유도 설명해 준다면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시설물입니다.

1. 횡단보도

보행자는 인도를 이용하고 운전자는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쓰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는 차도에 그려져 있으며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약속한 장소입니다.

만일 어린이가 아무 곳에서나 길을 건넌다면 운전자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장소라도 아무때나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자동차가 사용하고 언제 보행자가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입니다.

2.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선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서 신호등을 바라봅니다. 이때 절대로 인도 맨 앞에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밀면 어린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차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가 바뀌자마자 곧바로 뛰어 나가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인도에서 한 발짝 뒤에 물러 서 있도록 합니다.

초록불을 기다리기 위해 멈추어 서 있을 때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장난을 치면 길을 건너

려고 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3. 신호등이 어떤 색깔일 때 건너야 할까요?

신호등은 보행자가 언제 건너고 언제 건너면 안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신호등은 운전자들이 보는 것과 보행자들이 보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운전자들이 보는 신호등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신호등의 불은 둥근 모양입니다.

보행자들이 보는 신호등은 인도에 서 있습니다. 신호등의 불은 네모 모양입니다.

보행자들은 인도에 서 있는 신호등을 봅니다.

신호등은 언제 건너야 하고 언제 건너지 말아야 하는지를 색깔로 이야기합니다.

빨간색은 건너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빨간색의 불빛은 위에 있습니다.

초록색은 건너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록색의 불빛은 아래입니다.

* 색맹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신호등 불빛의 위치도 함께 설명하여 주셔야 합니다.

4. 그러나 초록불일 때 건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모든 차들이 당연히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바로 뛰어 건너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초록불로 바뀌어도 멈추지 못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멈춘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멈춘다면 곧바로 서지 못합니다. 조금 앞에 나가서 서게 되거나 어떤 물건하고 부딪히면서 멈추게 됩니다.

이처럼 빨리 달려오는 차는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고도 갑자기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록불인데도 횡단보도 위에 서거나 횡단보도를 지나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린이가 자동차가 멈춘 것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길을 건너면 자동차는 어린이와 부딪힌 다음 멈추게 됩니다.

반드시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난 후 길을 건너야 합니다.

* 교통규칙을 이해하는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내용으로 다가오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해시키기보다는 운전자인 부모님 스스로가 정지선에 정확하게 정지하는 운전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왜 손을 들까요?

어른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손을 들고 건너지 않아도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키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자신이 건너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의 눈에 쉽게 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손을 든다는 것은 길을 건너겠다는 의사 표

현입니다. 이는 운전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손을 높이 들고 건너도록 합니다.

6. 어느쪽 손을 들까요?

이 나이의 어린이들은 좌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쪽 손이든지 똑바로 높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속되는 상황속에서 여러가지 내용을 요구하면 오히려 갈피를 잡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운전자와 눈을 맞춘 다음 길 건너기, 횡단보도 우측으로 건너기, 손을 드는 각도 등은 이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요구하기에는 무리한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때에는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행동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횡단보도 선 안으로 건넙니다.

어린이들은 횡단할 때 길을 건너가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건너려고 합니다.

빨리 건너려는 행동은 뛰어 건너가거나 또는 횡단보도 선을 벗어나서 건너는 행태로 나타납니다. 횡단보도의 선을 벗어나서 길을 건너면 빨리 출발하려는 차와 부딪힐 염려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횡단보도 안에서 직선으로 건너게 하셔야 합니다.

8. 천천히 걸으면서 횡단합니다.

어린이들은 신호등의 불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횡단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편으로는 친구와 빨리 건너기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 뛰어 건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뛰어서 횡단하면 어린이들이 주위를 살필 여유를 가질 수 없고 운전자 역시 어린이들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맞은 편에서 건너오는 사람들과 부딪힐 염려도 있습니다. 반드시 천천히 걸어서 횡단하도록 합니다.

* 어린이들에게 천천히 걸으면서 횡단하기를 요구하기에는 신호등의 초록불 주기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빨리 건너기를 요구하는 운전자들의 경적 소리에 어린이들이 당황하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의 초록불 주기를 늘려 주어야 하며,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운전태도가 필요합니다.

9.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면서 건넙니다.

길을 건널 때 앞만 보고 갈 경우, 옆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건너는 중에는 반드시 차가 오는 방향을 살피면서 건너야 합니다.

10.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건너는 장소가 바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우선 횡단할 장소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멈추어 섭니다.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주위를 살핀 다음 차가 없을 때, 또는 차가 아주 멀리 있을 때 손을 들고 건너겠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차가 없거나, 차가 멈추었을 때 길을 건넙니다.

이때 직선으로 똑바로 건너야 하며 절대로 뛰어 건너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을 든다고 모든 차량이 다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든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동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건너도록 합니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절대로 어린이 혼자 건너지 않도록 합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건너도록 합니다.

11. 안전하게 길 건너기 - 종합

1) 인도에 멈춰 섭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인도에서 한두 발짝 뒤에 물러서서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2) 신호등의 불이 초록불로 바뀌면 차가 멈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하면 손을 들고 천천히 건너갑니다.

4) 길의 좌우를 살피며 건너도록 합니다. 앞만 보고 건너가면 안됩니다.

어린이들의 주요생활공간인 주택가 생활도로는 빈번한 자동차 통행과 불법주차, 과속 등의 요인과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행동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행동능력이나 사고력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도로는 어린이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어린이에게 가장 가까운 도로가 어린이에게 위험을 주고 있다면 우선 어린이에게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방법과 더불어 운전자들 스스로가 어린이등 보행약자를 보호하는 운전태도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자동차보다 어린이가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바로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소모임 소개

수원여성회 놀이연구모임

"아이들과 함께 즐거움과 실험"

지연 · 수원 용기종기어린이집 교사

'홍보가 안되어서 아이들이 안오면 어떻게 하지' '시간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까' 하는 걱정들이 시간이 다가오면 오히려 더 많이 되고, 긴장감도 돌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우리는 차분하게 서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주면서 무대 뒤에서 막 올릴 준비를 하였다. 불이 꺼져서 깜깜해지자 아이들은 더욱 웅성거렸다. 그러나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해야 해야 잠꾸러기 해야...' 노래소리와 무대가 밝아지면서 등장하는 그림자 인형들은 아이들의 눈동자를 사로잡았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흥미진진한 아이들의 표정을 무대 뒤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인형극은 비록 짧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재공연을 할 정도로 성공리에 마쳤다.

나는 주부인 언니들과의 모임은 처음인데다 처음 참가한 날부터 바로 인형극 작업을 하게 되어 약간의 부담을 느끼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인형극의 전문가가 아니었으며, 단지 아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바라는 사람들이기에 금새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짧은 대본에도 여러번의 수정이 필요했으며, 꾸준한 고민과 실험정신으로 뛰어난 음향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한 연구는 멋진 인형들을 탄생시킴으로써 공연의 열기를 키워갈 수 있었고 매우 즐거운 작업이었다. 또한 성공리에 치른 공연은 우리에게 인형극단을 만들어 매달 한 번씩 공연을 하자는 꿈을 꾸게도 하였다.

놀이연구모임(가칭)은 수원여성회의 동화마을이라는 동화책 주부소모임을 하던 회원들이 동화책을 공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 '96년도 어린이날 행사로 아이들과 '강아지 똥'이라는 손 인형극을 재미있게 치뤄내면서 인형극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96년 겨울에 놀이연구모임이라는 임시명 아래 몇몇의 회원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부들 중심으로 하게 되었으나 '97년도 어린이날 행사로 '요술부채'라는 그림자 인형극을 평회원들과 함께 해봄으로써 회원모집을 다양층으로 열어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상시 인형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회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바로 접수하게 되었다.

놀이연구모임은 아직 정식 모임명을 정하지 못하였고, 모임의 내용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지 못하지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부담주지 않고 서로의 숨겨진 재능도 찾아내고 격려해주며 조금씩 다양한 인형극을 처음의 작품선정에서 마

지막의 공연까지 해봄으로써 직접 느끼면서 공부해가고 있다.

놀이연구모임 활동은 첫 작품은 '요술부채' 그림자 인형극으로 '97년 5월 어린이날 행사때 공연하였고 9월에 고색동(용기종기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재공연하였다. 두 번째 작품은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그림자 인형극을 10월 해와 달님 인형극단 공연 때 함께 공연하였고 고색동 어린이 대상으로 재공연을 하였다. 그리고 매산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과 함께 '해와 달님' 그림자 인형극을 만들어서 11월 20일날 아이들과 함께 매산초등학교에서 공연하였다.

지금은 세 번째 작품으로 '취순이의 신랑감' 줄 인형을 준비하고 있다. 참, 우리는 공연후 평가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잊지 않고 함으로써 조금씩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에 스스로 즐거움을 느낀다.

개인적으로 놀이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후의 수원지역의 교사소모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가끔씩은 함께 공연도 나누고 인형극에 대해서 토론도 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비록 전업이 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수원지역에서 인형극단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공연을 할 꿈도 꾀본다.

표지사진 공모

- 『우리네 아이들』에 예쁜 얼굴을 보내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는 순간 가슴을 환하게,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게 하는 그런 사진을 보내주세요.

어린이집 일상활동에서 자주 접하지만 결코 흔치 않은 아이들의 맑은 모습을 담은 그런 사진을 보내주세요.

열악한 현실에서도 '굳세어라 금순아'를 가슴으로 부르며 꽃피듯 생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보내주세요.

그저 그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사진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세요.

- 어디로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요.

주소상 전화번호는 『우리네 아이들』 앞표지에 나와있어요.

▼▼▼▼

현장교육

자유놀이

유은성 · 서울 우리어린이집 교사

처음 영아반을 맡게 되었을 때 난 정말 난감했다. 말도 잘 안통하는 아이들과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나... 막상 만난 우리 영아반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않았다. 끊임없이 만지고 보고 듣고 돌아다니고... 아이들은 스스로 놀고 있었다.

영아반의 하루중 먹고 잠자는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은 넓은 의미에서 자유놀이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집중력이 아주 짧아서 계획된 활동이나 대집단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놀이가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고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은 장소와 사람과 놀이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 가장 좋은 환경은 자연인 것 같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 쓸 필요도 없고 또 아이들의 무한한 호기심을 담을 만큼 신기한 놀이감도 많다. 그러나 문밖을 나서기만 하면 되는 시골과 다르게 이곳 도시는 자투리 자연이라도 찾아나서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얼마전에 우리는 어린이집 뒤 불암산 입구 숲으로 나들이를 갔다. 한달 전에 왔을 때 기어 올라갔던 바위도 그대로고 나무들도 그대로인데 그때는 없던 낙엽들이 웅덩이처럼 깔려 있었다. 우리는 낙엽 위에서 뒹굴고 헤치며 신나게 놀았다. 이런 재미에 우리는 뭘 수 있으면 매일 나들이를 간다. 요즘은 아이들이 모두 잘 걸으니 노래 부르며 손 잡으며 걸어가지만 초기에는 유모차에 태우거나 업고 가기도 했다. 가까운 숲이나 공원, 놀이터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동네 한바퀴 돌고 오기도 한다.



이처럼 안과 밖이 열려 있고 안에서도 밖과 밖이 열려 있는 것이 좋다. 우리 어린이집은 일반 가정집 건물인데 주방을 포함해서 모든 공간이 아이들에게 열려 있다. 먹을 때와 잘 때, 주방에서 뜨거운 요리를 할 때, 대집단활동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집안 어디에서도 놀 수 있다.

둘째, 초기에는 교사와 일대일로 놀기를 좋아하던 아이들도 개월수가 높아지고 또래와 친해지면서 또래 놀이를 좋아하게 된다. 또 4.5세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의 형아들이 있어서 형아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모방하는 모습도 보인다. 얼마전에 덩실덩실방(유아반)에서 병원놀이를 했는데 그 다음주부터는 까까방(영아반) 아이들도 병원놀이 흉내를 내곤 하더니 몇주 지난 요즘은 종합검진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대부분 형제없이 혼자이거나 둘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이처럼 다양한 친구들과 형아들을 만나고 열린 공간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좋다. 우리 아이

들이 말이 빨리 놀고 놀이수준(?)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덕분이 아닐까. (고슴도치 교사 ☺)

셋째, 우리 어린이집에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도 없고 번쩍번쩍 그럴 듯한 장난감도 없다. 하지만 나이별로 맞는 좋은 그림책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있고 미술방엔 각종 도화지와 색종이, 가위, 풀, 색연필과 크레파스 등이 아이들 손 닿는 곳에 있어서 누구든지 꺼내어 쓸 수 있다. 또 '흥미꺼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놀이감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한다. 비싸고 좋은 장난감이 없는 이유가 재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 장난감하고만 놀지 않고 또래와 형아들과 놀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아닐까. 내가 어렸을 적엔 동네 친구들과 골목길만 있으면 어두워지도록 신나게 놀 수 있었듯이...

얼마전 한 모임에서 자유놀이를 주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의견이 많았던 기억이 난다. 자유놀이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이다. 교사가 주도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교사는 이때 관찰자로 있을 수도 있고 놀이집단의 한사람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영아들의 경우에는 교사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도 아이들은 놀다가 한 번씩 와서 안기고 가고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면 안심하고 더 잘 놀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관찰을 하다가 아이들의 흥미를 포착하고 그것을 흥미꺼리로 이어주거나 더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그래서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라는 말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현장소식 (1)

잊을 수 없는 열린 강좌

유지민 · 인천보육교사회 풍물패 '메나리' 회원

삐삐호출을 원하시면 1번 음성녹음을... 삐-

"예, 고정미 선생님. 저, 유지민인데요... 전에 말씀하셨던 열린강좌... 같이 준비할까 해서요...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해서요." 삐-! 녹음되었습니다.

그렇게 난 겁없이 뛰어들었다. 겨울이 더 가기 전에 보육교사회에서 제1회 열린 강좌를 연다고 준비팀에 들어오라는 고정미선생님의 꼬임에 드디어 넘어간 것이다.

이름하야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제1회 열린 강좌 '우리의 장단, 우리의 노래' 준비위원회! 와- 거창하죠? 10월14일 준비팀 첫 모임. 고정미 선생님과 샘터어린이집의 배불뚝이 이인희선생님과 그리고 멋모르고 뛰어든 나. 준비할 것을 하나하나 적어갔는데... 초대장, 포스터, 후원, 자료집과 어린이집 주소록 등등이었다. 자료집과 테이프는 이인희선생님이 맡으셨고 전체적인 계획은 고정미선생님이 맡으셨다. 나? 난 뭐 하냐? "선생님 저 뭐 할까요?" "아, 선생님은 나중에 각 어린이집으로 우편 발송해요." 엠피! 별거 아니네- 그랬는데...

한 주가 지나니 예술 꼬맹이들의 앙증맞은 모습을 담은 포스터가 나오고 또 한 주가 지나서 나예전 열장 정도의 종이 전해져 왔다. 그건 바로 인천지역의 어린이집 주소록. 별 어려운 성 아니라고 했더니... 예구예구-난 이제 잡 다 잡다. 이 많은 곳에 초대장을 다 보내라니 그것도 이번 주 안으로... 그날 밤 난 바빠지기 시작했다. 감겨지는 눈꺼풀을 부릅뜨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주소록을 작성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가서 요금후납 도장을 팡팡! 찍어냈다. 우체국을 3번째로 가던 날엔 우체국 여직원이 날 보고 웃었다. 그러면서 "또 오셨네요?"

여기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우편봉투를 80장 들고 도저히 버스를 탈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탔다.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 하는 말, "서류봉투장사 하세요?" 과다당-!!! 또 하나... 우체국엘 가서 열심히 요금후납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끝! 근데... "너 출근 안해?" 울엄마의 목소리... 이런! 꿈에서까지 우체국엘 갔단 말인가. 우!! 여섯번째 모임에선 김명숙 선생님이 참석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다(하마 입보다 더 크게 웃으며 신혼여행을 간 고정미 선생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서...)

날짜가 가면서 우린 모두 초초해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11월 22일이 왔다. 아침부터 밝은터로 가서 여러 선생님들과 즐기고 닦고(밝은터 회원님들! 우리가 청소 다 해줘서 고맙죠?)... 풍선도



↑ 우리 장단은 흥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우리 아이들은 쉽게 우리 장단에 친숙해진다.

난 아직은 우리 장단을 알기 시작한 풋내기엔 불과하다.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리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장단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니 그 아이들 맘 속 깊이 숨겨진 우리 장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정말 바쁘셨던 고정미 선생님! 자료집 만드느라 부군님과 뱃속 아기까지 잡 못 재우며 고생하셨던 이인희 선생님! 정말정말 사랑해요- 그러구... 열린 강좌 해주신 임수정 선생님, 보육교사회의 모든 선생님들 모두모두 수고하셔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해맑은 눈을 가진 꼬맹이들아- 너희들두 정말 사랑해-

100개 넘게 불고 인천대 자활모임 '고리' 학생들도 와서 도와줬다. 너무 깨끗이 청소를 한 덕분에(?) 화살표를 불이러 내려가다 그만 짹!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만 것이다. 퐁퐁 부은 다리에 붕대를 감고 풍물패 메나리의 축하공연을 했다. 30여명의 선생님들이 지켜보아서 그런 걸까? 북채를 잡은 손이 떨리기만 했다.

열린 강좌 강의는 한 마디로 대단했다. 임수정선생님의 가냘픈 모습에서 어떻게 그런 기운이 나오는지... 두 시간의 강의가 파분하기는 커녕 신나게 놀고 난 듯 했다. 소고를 들고 뛰면서 노래부르면서 그렇게 흥이 날 수 없었다. 얼굴엔 웃음꽃이 피고... 다들 열린 강좌를 끝낸 것이 아쉽기만 했다. 우리 장단은 흥으로 시작한다는 말, 그 말이 정말인 듯 싶다. 내 몸 속에서 끓어오르는 흥분, 들쭉거리는 어깨,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도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우리 장단이다. 아이들이 우리 장단에 그렇게 친숙한 것도 그것 때문이리라.

현장소식 (2)

놀이사랑분과 강습회를 끝내고...

최응경 · 전북 금암어린이집 교사

지난 11월 15일 (토)에 전북보육교사회에서는 큰 행사를 하나 치뤘습니다.

전주지역 보육교사들이 함께 모여 꾸민 이 행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이사랑분과의 주최로 공동체놀이, 노래 (성, 환경, 함께 사는 세상, 통일에 관한 노래모음), 율동, 손놀이에 관한 강습회를 열었는데,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폭력성과 오락성이 짙은 TV나 대중매체에 우리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좀더 한국적인 정서가 가득한 심성을 심어주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는데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는지.... 강습회를 여는 데에는 몇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 놀이를 찾아주자는 의미에서 혼자 노는 놀이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를 몇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게 놀이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놀이를 뛰고, 뛰고, 몸을 부대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였기 때문이고, 둘째, 재롱잔치가 각 집에서 열릴 즈음에 강습회 날짜를 정해서 율동이나 재롱잔치의 소재빈곤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선생님을 위해 작거나 마 고민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셋째, 타성에 젖어 매일 같은 춤과 반복되는 손놀리로 아이들과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었습니.

한국보육교사회 전북지부 놀이사랑분과모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로부터 문의전화도 받았습니다. 우리 모임의 특성과 성격을 알리고 좀더 많은 교사가 함께 어울려 모임을 활성화시키려고 고민하던 중에 귀한 행사를 치르게 되어 전북보육교사회가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를 치뤄내기까지 일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1월에 해야 할 강습회를 위해 놀이사랑분과원들은 9월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자료집으로 만들고, 창작물도 함께 자료로 모았습니다. 분과원들은 자료수집부터 테이프 제작, 자료집 편집, 행사장 꾸미기, 행사프로그램 진행 등등 1인 다역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분과원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리고 전북지부 보육교사회 소속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강습회가 그 목적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배앗긴 정서 배앗긴 문화(다림 출판사 / 홍양자 지음)』 책공부를 통해 우리의 놀이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강습회는 부분별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첫시간에는 노래배우기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선별해서 곡을 실었습니다. 성역할의 평등과, 내 몸과 나 아닌 다른 사

람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성에 관련된 노래와, 오염되어 가는 지구의 환경을 지켜나가고 보호하자는 환경에 관한 노래, 이 다음에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이 하나되는 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와 통일을 바라는 노래, 그리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사는 세상을 그린 노래를 통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아름다운 정서를 심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래동요를 통해서 순수 우리 곡의 곡조와 아이들 세계를 장난스럽게 표현한 구전동요를 배웠습니다.

공동체놀이 시간에는 예전에 즐기던 우리의 놀이를 소개했습니다. 땅이 좁아지고, 하늘이 좁아져 우리 아이들의 마음마저 좁아져 버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놀 수 있는 공간과 놀이를 제안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진 프로그램은 손놀이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식상해져 있는 손놀리로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선생님들을 위해, 그리고 입으로만 전해져서 잃어버리기 쉬운 손놀이를 모아 선생님들과 함께 배웠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손놀이를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의 일정이 대단했습니다. 금암어린이집의 여름 환경캠프가 사례발표로 소개되고, 율동시간으로 이어진 프로그램은 그 열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눈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율동을 하기 위한 곡들은 부드럽게 해 줄 수 있는 곡들로 선별해서, 자연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한번 떠나질 않고 열심을 보이신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습회를 준비하는 동안 밤을 새는 일은 기본이었고, 항상 모여 앉아 회의를 해야 했으며, 자료수집이 제대로 되질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선생님과 강습회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열정과 그 하나됨이 그동안의 수고를 모두 잊게 했습니다.

이번 강습회를 통해 한국보육교사회를 알리고, 전주지역 선생님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으며,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조금이나마 우리 것의 소중함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과 희망이 함께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강습회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과 노래테이프가 필요하신 분은 한국보육교사회 전북지부 '놀이사랑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금암어린이집(최응경선생님) 0652-253-0389

가격: 8,000원

▼ ▼ ▼ ▼ ▼ ▼ ▼

좋은 그림책 소개

저런 버거송이네

고미 타로 글, 그림 / 이종화 옮김 / 비룡소 / 6,000원



책표지의 사자는 어딘가를 쳐다보며 웃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 “잡아먹을테다.”하면서 고양이를 쫓아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자야, 목욕해야지. 옷 벗어라.”

사자가 옷을 벗으니 이상하지요. 머리에 쓴 사자털을 주욱 벗고 사자옷도 훌훌 벗습니다. 벗고 나니 이번에는 옷이 나옵니다. 이제는 조끼부터 벗기 시작합니다. 팬티까지 스트룩 사악 벗고 나니 곰모습으로 변했어요.

“아니 안돼! 꿈아, 빨리 옷을 벗어야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꿈이 옷을 벗다니 이상하지요. 그러면 한번 더 훌훌 옷을 벗고 나니, 드디어 용
이의 벗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장난꾸러기 용이야! 몸을 깨끗이 씻으렴.”

목욕을 끝낸 용이의 벗은 몸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등장하는 것이라곤 고양이와 사자옷을 입은, 곰옷을 입은 용이밖에 없는데 지루하거나 심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짧은 글과 글에 딱 맞는 그림이 이야기를 매끄럽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뚝뚝한 일상적인 경험과 사자에서 곱으로 변하는 상상이 빚어낸 즐거운 그림책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림책 소개 : 오윤정(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서울 노원구 통통어린이집)

* 그전책에 관심있는 교사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교사는 본회로 연락바랍니다.



탁아소 별곡

우리 아이들의 나라, 우리 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 이야기 하나 - 학교는 좋은데 나오고 봐야 해~

아침시간. 출석카드에 아이들이 원하는 도장을 찍어주던 선생님께

인 국(39개월) : 잠자리 도장 찍어 주세요.

선생님 : 그래. 오늘은 21일 금요일이에요. 잠자리다. 쾅

그럼 인국이 잠자리 노래 해보자.

인 국 : 못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 "잠자리 날아다니다 잠자리 꽃에 앉았다. 실금 실금 실금 실금."

수 호(37개월) : (옆에서 지켜보다가) 선생님,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요?

선생님 :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인 국 : 아, 학교예요?

☺ 이야기 둘 - 근거 있는 이야기

어린이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는 주원의 근거(?) 있는 이야기.

주 원(6세) : 선생님, 왜 하나 이름이 하나인지 알아요?

선생님 : 글씨? 아빠가 하나라고 지어주셨잖아.

주 원 : 그럼 왜 하나아빠가 하나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선생님 : 잘 모르겠는데.

주 원 : 나는 알아요. 하나아빠 친구가 하나아빠한테 "자네는 어느 은행 다녀?"하고 물어보니까 하나아빠가 "하나은행 다녀"라고 대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 이야기 셋 - 됐다, 됐어!

치랑운동중 엄마를 기다리던 은정과 다혜가 둘리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두 손을 위로 하고 병글병글 돌던 은정이가 선생님을 보고 얘기했다.

은 정(42개월) :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나 예쁘죠?

선생님 : 정말 예쁘구나.

더욱 고무받은 은정이가 계속 병글병글 도니까 옆에 있던 다혜가 하는 말.

다 혜(42개월) : (아름다 목소리로) 은정아, 됐다 됐어!

☺ 이야기 넷 - 먹돌이의 항변

먹성이 아주 좋은 수호는 아침을 꼭 먹는데 오늘은 못 먹고 빵을 사 가지고 등원하는데-

선생님 : 수호아, 아침 안 먹었구나. 우유랑 빵 먹자!

수 호(37개월) : 아취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싹겠어요!

☺ 이야기 다섯 - 수요일엔 치마를?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미술선생님을 기다리는 아이들 마음이 설렌다.

드디어 선생님이 치마 비슷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

선생님 : 선생님 예쁘냐?

아이들(5세) : 예뻐요! 맛있어요!

아이들(6세) : 색시해요!

이번 탁아소별곡은 서울 성북구의 무너터전어린이집에서 활동하시는 황호정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모습을 옮겨주신 황호정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시설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재미있던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황호정선생님 아이들의 월령(나이)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네요.

교사의 의견

아이들은 바깥놀이 시설이 필요하다

전경숙 · 수원 용기종기어린이집 교사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도 '우리 아이는 밖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하는 엄마가 있는데, 우리 어렸을 적 생각해 보면 눈발 날리고 바람 쌩쌩 부는 날에도 밖에서 종일 쏘다니며 놀다가 저녁때 집에 들어갔던 생각이 난다. 그래도 요즘 아이들처럼 한달 내내 감기를 달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따뜻한 실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더 감기에 잘 걸린다는 사실은 경계있는 보육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용기종기는 '밖'이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주 1회씩 멀리 가는 바깥놀이(야외수업)를 다닌지 6년째이다. 지금 장소로 이사하기 전에는 거의 매일 바깥에 나가서 기차도 보고(그때는 수인선이 다녔다), 논·밭에서 나가서 콩, 호박, 갯잎 등도 보고 메뚜기, 잠자리도 잡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바깥놀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실행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모래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논밭에 흙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양도 안되고 흙 자체도 이것저것 많이 섞여서 놀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한주먹 두주먹 쥐고 노는 것을 볼 때면 아이들이 흙을 좋아하는 것은 본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래놀이 공간이 있다면, 아이들은 실내에서 보다 더 신나게 놀면서 햇빛, 바람, 공기덕에 더 건강해졌을 것이다. 교사들도 일일이 옷을 챙겨 입혀서 차조심 사키면서 데리고 나갔다 들어오던 그 전 보다는 덜 부지런하면서도 더 재미있는 기회를 많이 주게 되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좋은 모래놀이 공간이면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어린이집 실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그런 공간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것이다. 정부에서 어린이집마다 시설지원이 힘들다면 동네마다 놀이터라도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이 쉽게 뛰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용기종기가 위치한 고색동은 마을 놀이터 하나가 없어서 모래놀이와, 마음껏 뛰어 놀 공간을 찾아 길 건너 초등학교로 가야 한다. 지금은 그 초등학교까지 가려면 한 정거장 걸어가야 하는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

요즘같이 차가 골목골목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는 때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꼭 훌륭한 놀이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모래놀이 마음껏 할 수 있고 차 따위 신경쓰지 않고 뛰어 놀 공간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문방구 앞 전자오락실에 매달리는 아이들이 적어지겠지. 어쨌든 놀이터가 주변에 많이 생겨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흙장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육아일기

유빈이는 김치 좋아해

이선홍 · 유빈이 아빠, 회사원

물 좀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 때면 주르르 달려와서 "유비니는~은 치즈 조아해." 하면 두 개고 세 개고 주지 않고는 못배깁니다.

유빈아 이게 뭐야? "으~ 응응. 요거언 기이~차야."

그럼 저건 뭐야? "그거언 시계야."

정확한 발음으로 내달리듯 대답합니다. 말을 알아 듣고 대답하는 모습이 귀엽고 신기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요건 뭐지? "유빈이 아빠 고(코), 이건 유빈이 아빠 눈... 귀... 목... 손..."

신이 나는지 이번엔 유빈이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건 뭐어~야?" 어영. 그~거언 냉장고야.

"아빠, 이건 뭐어~야?" 어영. 이~거언 입이야.

"아빠, 이건 뭐어~야?"

어영... 눈이야, 코야, 입이야, 손이야.. 유빈이한테 역습을 당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작은 손에 이끌려 다니며 말하다 보면 이름도 없는 것들이 많음을 새삼 알게 되고 스텔라(?), 테레비, 컴퓨터, 리모콘, 비디오, 라이터 등 국적도 발음도 어지러운 사물을 만나면 좋은 우리 이름이 없을가 고민을 해보지만 어렵습니다.

위기일발. 더 이상 끌려 다니다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기습을 해봅니다. 유빈이가 모르고 있는 사물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재빠르게!

그러면 이건 뭐지? "어~영, 어~영... 이거는은~"

한참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씩 웃으면서 고개를 들고는

"이건 뭐야?" 뭐야! 머리 쓰지마!

한바탕 웃고 맙니다.

이거 누가 먹지? "유비니가아~요요."

이건 누구거지? "유비니 거에~요요."

아빠 이름이 뭐지? 크고 높은 소리로 "이서봉이에~ 요요."

엄마 이름은 뭐지? 자신없는 듯 작은 소리로 "어영 어영... 나은미예요."

아빠는 기분 좋고 엄마는 '흥'하고 유빈이를 재려 합니다. 눈치가 생긴 터라 엄마 뺨을 쓰다듬으며 작은 얼굴에 아양이 가득합니다.

"유비니는~은 김치 조아해."

요즘 유빈이가 밥 먹을 때면 입이 달도록 하는 말입니다. 퇴근하자마자 밥상에 자리를 잡으면 푹 튀어나온 뺨을 내밀며 달려와 무릎에 앉고는 "유비니는~은 김치 조아해." 빨리 달라는 눈빛으로 김치를 가르킵니다. 아빠 입에 넣어 고춧가루를 얹어고 주며는 "아니야. 아니야." 영문을 몰라 유빈이 엄마를 쳐다보니 입에 들어갔다 나오면 절대 안먹는다고 합니다.

김치를 넉넉넉히 받아 먹는 유빈이도 신기하지만, 예전에 김치를 먹이려 하면 매운 음식은 애에게 안좋다고 말리던 유빈이 엄마의 태도가 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만 즐겁고 고마운 일이라 다 먹기를 기다리다 쟁쟁게 입에 넣어주고 또 기다립니다. 대부분 밥과 국에 문지르고 담궈 매운기를 얹어고 먹이지만 가끔씩 남아 있는 고춧가루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매워 매워." 하며 어쩔 줄 몰라하면 나도 덩달아 허겁지겁 일어나 물을 찾아 따라 주거나 땀 났을 때 한 손가락 가득 퍼서 먹입니다. 혀를 내밀고 손으로 입을 어루만지면서도 곧바로 "김치, 김치"하면 녀석도 이제 민족의 입맛을 내려 받았다는 생각에 얼큰 밥 한 손가락에 김치 조각을 얹어 먹입니다.

음식문화란 민족성의 육체적, 생물학적인 기초를 이루고 더 나아가 생활문화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며 식사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인간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모임을 살펴보면 대체로 먹을 것을 매개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같이 둘러앉아 팔그락 거리며 국을 뜨고 잘 익은 김치를 씹는 먹거리행위가 주는 우리네 정서는 패스트푸드(fast food)점의 깔끔한 분위기나 보기 좋은 음식물만으로는 도저히 대신할 수 없는 문화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거리마다 늘어선 외산 패스트푸드(fast food)점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은 여성인 것을 볼 때마다 저러면 안되는데... 미래 식생활에 전적이지는 않겠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입맛을 버리면 주위 사람의 몸도 마음도 어지럽혀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세태가 바뀌고 가정생활이 이전과는 달라 외식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수많은 음식물중에 하나로 선택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여전합니다.

애기방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김치를 좋아하고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김치 먹기를 배운 유빈이를 흡족한 마음으로 보고 있노라면 오손도손놀이방에 유빈이를 맡긴 건 아주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읽기

또 다시 희망을 품으며

위양자
본회 부회장

"대선후보들의 찬란한
공약 어디에도
복지예기는 없다.
보육의 '보'자도 찾아볼
수 없고 보육현장을 찾는
후보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스산해지는 날씨 탓인지 마음 한구석이 뻥하다.

빗발인지 눈발인지 모를 물줄기가 이따금씩 오라가라, 겨울
가뭄을 해갈해주는 단비라고들 하는데.

이번주에도 생활협동조합매장엔 유정란이 바닥났다. 먹거
리 오는 첫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벌써 한달이 넘게 달걀을
못먹고 있다. 얼마전 변산 닭장에 가보았을 때 닭들이 건강하
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말이다.

이유인즉슨, 달걀아저씨 마음이 바뀌었다. 유기농법농사
를 10년 넘게 지냈건만 늘어나는 빛에 놀려 더 이상 유정란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리고 요즘은 길거리를 지나다 가
끔씩 보았던 '왕새우 소금구이' 장사를 나섰었다.

대선후보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20분 정도 얼굴을 내밀려면
2억5천에서 3억5천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최소한의
법정 선거자금만 해도 35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을 그만 두고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선
최소 20조원의 원금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나로서는 알
아볼 방법이 없어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다. 숫자에 유난
히 무딘 나로서는 억이니 조니 하는 개념조차도 없지만, 입이
안다물어지고 기가 막힌다.

누구는 10년 넘게 하늘 쳐다보고 농사지어 빚 만지고 쓴
눈물 삼키며 길거리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억의 돈을
몇 달 사이에 쓰고 5년후엔 수조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
들이 있다.

내게는 달걀아저씨의 웅크린 등만이 떠오른다.

'97년의 11\12를 살고 이제 1\12이 남았다. 짧기도 하고
어느 해보다 길기도 한 한달이 남았다. 누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간에 한사람의 대통령은 가려질 것이다. 그러면 아마 한
5년쯤 이 땅을 돌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과연 해냈다면 '왕
소금구이' 아저씨의 갓 구운 새우에 찬 소주 한잔 부을 지
도 모르겠다.

기왕이면 희망찬 '98년을 기대해 볼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
다.

대선후보들의 찬란한 공약 어디에도 복지에기는 없다. 누군가 교육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제' 살리기 구호를 목청껏 외치고들 있다. 보육의 '보'자도 찾아볼 수 없다. 후보들이 시장이며 농촌이며 여기저기 현장을 방문하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하지만 보육 현장을 찾는 후보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아마 선거때는 논문 표 하나라도 건지려고 노인정에는 찾아갈 망정 고아원은 찾지 않는, 지극한 효심(?)만 있지 내리사랑은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한국보육교사회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은 '97년이, 우리 보육교사에겐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해였고, 한국보육발전의 원동력을 거침없이 분출해내는 '98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보육교사들의 희망이다. 앞으로 10년쯤 지난 후에 보육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대통령 시켜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아이들을 지킬 깨끗한 한국의 보육교사로 살고자 함이 바로 오늘의 희망이기에.

[찾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대변자로 제 목소리를 내자 노력하는 『우리네 아이들』이 사람을 찾습니다.
재치있는 사람,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발 딛고 사람 돕고 싶은 사람
아래의 욕망에 사로잡힌 분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 분, 연락주세요.

아, 그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도 『우리네 아이들』에 이름이 나가면 분들의 글도 받습니다.

꼭 전화주세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02)275-8506

예년보다 따뜻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창밖으로 꽤 매서운 바람소리가 들린다. 입동도 지난 이즈음, 어느덧 겨울살이 준비를 청겨야 할텐데, 나에게는 보통의 준비에 새로 태어날 한 사람의 몫까지 곁들여야 하기에 마음이 분주하다.

아이들 키우는 일이 직업이었지만 처음 맞이한 임신과 출산은 낯설고 불안하기만 하다. 일본에 오자마자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아기가 생겼기에 더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12월초 예정일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무사히 출산을 했으면 하는 바람만 간절하다. 그 바람과 아울러 『우리네 아이들』 가족들에게 일본의 임신·출산 과정에 따른 제도는 한국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비교해 전하고 싶은데, 한국에서의 실제적 지식이 없기에 단편적이거나 이곳에서 알게 된 이모저모를 이야기해 보겠다.

처음, 임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 병원을 찾으니 기본적인 검사를 한 후 임신 사실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모자수첩'을 발급 받을 것과 검진에 따른 안내장 등을 알려주었다. 검사종류는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검사와 희망자가 선택하는 검사로 나뉘지고, 기본검사 항목 중에는 각 자치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무료

검사가 있다(혈액형, 매독반응, B형간염바이러스, 피검사 등). 초기에는 4주에 1회, 28주부터는 2주에 1회, 36주부터는 1주에 1회 정기검진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데 임신·출산과정 안내서와 같은 지침서를 주었다. 사전지식이 없는 누구라도 이 책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신과정이나 임신에 따른 신체변화, 주의사항 식생활, 생활태도, 태아의 성장, 출산준비, 분만과정, 산후생활, 아기 돌

보기 등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병원마다 그 병원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주는 것 같았다. 또 '어머니 교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4회 정도로 나눠 교육을 행한다. 이 교육에서는 '모자수첩'을 받게 되는데 이 수첩은 출

산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각 구청마다 제작 배부하는 모자수첩은 병원에 갈 때 꼭 지참해야 하는 것으로, 임신경과와 출산 후의 신체변화, 상태, 신생아부터 6세까지의 건강검진, 발육, 예방접종 기록, 주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출산육아에 따른 복지제도도 기록되어 있다.

내가 10개월 임신과정 동안 인상적으로 느낀 것은 임신·출산의 의료적 대응과 출산·육아의 복지적 대응에 관한 것이다. 임신·출산의 전 과정은 병원에서 담당하는데 의료보험제도가 잘 발달된 일본이지만 이 경우

○ 오사카에서 온 소식

12월, 오사카에서 맞이하는 첫 아기

-이쿠노구의 출산·육아 제도에 대해-

변미양 · 본회 명예회원, 일본 오사카 거주

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임신·출산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의 부담이 꽤 크다. 기본 진료비가 1회 한국돈 25,000원 정도이고 검사 항목이 추가되면 액수는 더 커진다. 그리고 출산비는 대략 35만엔 정도로 우리돈 250만원이 넘으니 비용은 한국의 몇배나 되는 것 같다. 출산비에는 기본적으로 7일의 입원비가 포함된 것으로, 일본에서는 출산후 7일간 병원에 있으면서 몸조리랄까 육아에 관한 교육을 행하는 것이 관례인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비용 부담인데 이것에 관한 보완체계가 보험과 보건소에서 하는 복지적 대응이다. 임신에서부터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아이가 6세까지는 여러 관리를 받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출산시기에 30만엔 정도의 임신·출산에 따른 보조비가 나온다. 이 비용으로 대략 70% 이상의 비용은 보조를 받는 셈이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지원비로 3세까지 40,000원(한국돈) 정도의 아

동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아기의 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며 전담창구도 설치돼있다(기본적 접종·검진은 무료라고 한다). 이밖에도 육아시설 연결과 지원, 출산시 입원조산제도(구의 복지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출산비 지원제도), 임신중 임신부의 건강 이상시 의료양호비 지급, 장애아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 다양한 이용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없어 아쉽지만, 어렵 곳이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제도와 행정관리가 자리잡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머니’라는 이름의 힘을 새삼 절감하면서, 모든 어머니들과 어머니가 될 모든 여성들은 이 세상을 열어 가는 위대한 존재임을 가슴깊이 새기며 글을 마친다.

건강한 아기 낳을게요. 여러 모로 걱정해 주고 격려해주는 회원들께 안부말씀 전합니다.

제4회 퍼즐퍼즐 정답

어때요? 『우리네 아이들』을 골똘이 보신 분이라면 아주 쉽게 풀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2월에 또 다시 새로운 문제로 뵙니다.
그때까지 『우리네 아이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길...

인	권	보	육	요	구	르	트
도		의		숙		집	사
주	세	전	노	비			
의	연	금		유	보	일	원
	역	편				수	장
비	법	식	이	요	법		한
타			유				마
민	요	품	식	중	독		음
디		물	꼬	간		대	통
		곳		자			장

우리들의 목소리(1)

약은 감기를 못이겨

조선미 · 서울 햇살어린이집 교사

세상 돌아가는 모양 만큼이나 싸늘한 바람이 나의 코끝을 스친다. 다시금 목도리를 치켜 세우며 발걸음을 재촉해본다.

‘예이, 조금만 일찍 일어날 걸...’

항상 느끼는 생각이지만 오늘은 더욱 더 절실하다.

‘아이들이 밖에서 떨며 기다리면 안되는 데...’

공공 열어버린 손과 얼굴을 감싸고 문에 들어서 아이들을 맞이하며 어머니들과의 첫인사는 “참조?”, “추운데 빨리 들어와라” 하며 아이들의 손을 이끈다.

“선생님, 네... 할머니가요 네... 어제요 네... 방구 잤어요.”

“아니야... 아빠가 방구 잤어.”

우리 아이들은 방귀 낀 이야기가 그리 좋은지 아침에 이야기 메뉴로 꼭 한 편을 한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햇살어린이집 일과중 한가지가 더 늘어난다. 아침등원과 함께 슬며시 내미는 의료보험 카드는 아이가 밤새 안잠았다는 걸 의미한다. 어쩔 때는 너무 많아서 오전, 오후로 나눠 가야 할 경우도 생긴다. “어제 밤새도록 기침 했어요.” 하며 내미는 카드와 돈을 받아들며 한편

은 안스럽게 여겨지지만 한편은 ‘저 정도 중세 가지고 무슨 병원이야. 요즘 안아픈 애 있나?’하며 무심한 생각도 가져본다. 하여튼 손에 손 붙들고 가까운 소아과를 찾아들면 아픈 아이들이 왜 이리 많은지, 한참을 기다려 전성전성 치료가 끝나고 약을 받아들고 나오면 병원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간다.

어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 약은요, 많이 먹일수록 면역성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의사가 아닌 이상은 안통할 것 같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에게 “의사선생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야. 하지만 병이 생기면 내가 이겨내야지 약이 날 지켜주는 건 아니란다. 자기 전에 이를 꼭꼭 닦고 자고 밥도 많이 먹어야지 병이 안생겨.” 라고 이야기 해주었더니 병원에 자주 가는 한 아이가 의사에게 “민들레반 선생님이요, 그러는데요, 병원이요 나쁜 곳이래요. 그러구요, 네... 약은요 병을 이기지 못하대요.” 그날 의사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던지.

나는 아이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차가운 눈을 땀손으로 문쳐 눈싸움하고 썰매도 타며... 감기 걸리는 게 무서우랴. 아이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라던데...



우리들의 목소리(2)

악동들의 축제

유주연 · 전주 롯데어린이집 교사

“선생님! 겨울인데 눈이 와야지 왜 비가 오나요.”

잠깐 쉬는 틈을 타서 겨울이면 눈을 연상하는 우리 악동들의 질문이다. “날씨가 추우면 눈일텐데 따뜻해서 비가 오는거야” 여름보다는 춥잖아요.” 비가 오는 것이 선생님 잘못인양 대답하기가 무섭게 또다시 물어온다. “힘드니까 얘기 그만하고 쉬어. 연습 또 할거야.”

요즘 우리 아이들은 1년중에 가장 크고도 마지막을 장식할 재롱잔치 연습에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뒤로 밀려진 책상, 벽쪽으로 붙여진 교구장, 바닥에 아이들의 위치를 표시한 빨간 스티커. 이것이 요즘 우리 14명의 악동들이 작은 꿈을 키우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가고 난 교실에서 오늘 나는 어떤 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혔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우리 반에서 제일 막내인 근태. 선생님의 여러차례 지적으로 동작 하나하나가 위촉되어 있었다. 그런데 매번 틀리는 곳에서만 틀리게 되자 나도 모르게 이름을 크게 불렀다. 놀라서 토끼눈을 한 근태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했고 순간! 꼭 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많이 놀랐구나. 미안하

다. 근태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선생님도 아이들도 지쳐가며 보여주기 위하여 꼭 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했다. 선생님이 화를 많이 낸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했다. 그러자 우리 악동들 도리어 선생님을 위로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거라고. 그러니 괜찮다고.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해오겠노라고.

새삼스레 악동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떠오른다. 그러고보니 어느새 겨울이 왔다. 봄이 시작되기 전에 만나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맞고 있으니. 이제 얼마 있으면 악동들을 만나던 그때가 돌아오겠지. 그러면 이 녀석들을 떠나보내고 또다른 만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D-4. 4일 남았다. 칭찬과 꾸중 속에서 또 다시 부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또 다른 추억 하나가 새겨질 것이다. 내일 아침엔 악동들이 기다리는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해주어야겠다. 사슴반 14명의 악동들을 선생님이 정말정말 사랑한다고..



한국보육교사 신임교사교육

1. 일시 : 12월13일(토) 오후 3시~7시
 2. 장소 : 여성평화의 집 지하강당
 3. 참가비 : 없음
 4. 대상 : 한국보육교사회 신임회원(준회원)
 5. 내 용 :
 - 개회식
 - 참석자 소개
 - 한국보육교사회 임원 소개
 - 교육
 - 한국보육교사회의 역사와 방향
 - 한국보육교사회 현황과 활동 소개
 - 보육교사의 역할에 관한 토론
- 문의 : 02-275-8505

보육계 풍향

‘98년도 교원 워크숍 참가신청 안내

『유아안전교육』

1. 교육일정 : 98. 1. 20-21.
1. 20(화) 09:00-17:00
1. 21(수) 08:40-12:20
2. 내용
 - 기조강연 :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의 방향
 - 워크숍 : 유아생활 속의 안전교육
 - 유아교육기관
 - 시설/대인 안전
 - 교통안전
 - 응급처치
 - 토론 : 안전교육 문제점
 - 안전활동 소개 및 교구 제작·활용
 - 위의 사항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교육비 : 45,000원 (재료비 포함)
4. 참가신청 방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	제()회
유아교육기관명	직위
유아교육기관 주소	우()
자택 전화	직장전화

- ① 아래 계좌로 송금.
한일 394-002860-13-001
한국어린이육영회
• 교육비를 송금하실 때는 반드시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아래의 참가 신청서를 기재하여 우편, Fax로 본 연수원에 직접 제출바람.
• 주소 : (우) 138-732 서울 송파구 신청동 7-12 한국어린이육영회 연수원
Fax: (02) 422-1855
4. 신청기간 :
1997년 12월1일부터.
각회별 선착순 220명 마감
입금일 이전에는 신청되지 않음.
5. 연수 안내문 통보 :
참가가 확정된 분에게 12월 30일까지 안내문을 개별통보함.
6. 문의 : (02) 424-3033~5

민보련에서 떠나는 '일본 보육연수'

전국민보련에서는 보육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후쿠오카를 비롯하여 4군데를 돌아보게 되는 일본 보육연수를 실시한다.

1. 지역 : 후쿠오카/벳부/아소산/구마모토
2. 일정 : 3박4일
(3차 실시)
3. 출발일 :
1차-1월8일(목)
2차-1월12일(월)
3차-1월15일(목)
4. 연수경비 : 65만원
(연수 및 공동경비 포함)
5. 문의처 : 02-722-8200
(세계일류여행사,
담당 : 장선량, 서정화)
6. 주최 : 전국민간·가정
보육시설연합회
7. 계좌번호 :
농협 003-17-000355
세계일류여행사

한국보육교사회 제2 차 정기총회 및 교사 연수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교사회로 전환한 후 첫 정기총회를 갖고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임원

진 선출과 사업계획을 인준하는 자리를 갖는다.

아직 준비중이라 정해진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1월 중순까지 공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일시 : 98.2.7(토)~8(일)
장소 : 서울
(구체적 장소 미정)

코다이 음악교수법 세 미나

한국코다이 음악교육협회·코다이 음악연구소(소장 조흥기)는 음악을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코다이 교수법을 통해 음악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알리고자 '코다이 음악교수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교대부속 초등학교 강당(12월29일부터 31일까지)과 대구 교원공제회 강당(98년 1월7일부터 9일까지)에서 각각 실시하는 세미나에서는 전래동요의 교수법 적용 등 한국적인 음악교육의 방법을 배운다.
문의 : 02-335-0969

무료전화 상담

화원교육연구소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장애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전문상담가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전화상담을 실시한다.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불안한 심리상태, 부모-자녀 관계의 어려움, 공포증 등 아이들의 정서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다.
문의 : 02-501-2366



4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청 유아교육정책토 론회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이 10월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대모임 공동대표인 임재택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 현재 이원화체제의 유아교육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유아교육 공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연대모임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일원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 정기국회 올 회기내에 이 법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여 줄 것을 4개 정당에 제안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김원길 의원과 자유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이태섭 의원이 참

소식과 소식

석하였는데, 김원길의원은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올 회기내에 최대한 처리토록 노력하겠으나 별도의 유아교육법 제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유아교육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확대 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10월29일 2시부터 5시30분까지 근로복지공단 강당에서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에서 주최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여성단체 회원과 관련공무원 및 직장보육시설에 관련된 노조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직장보육시설의 현황진단'의 기초발제에서는 사용자, 보육교사, 이용자(부모) 보육시설 설문지 분석과 결과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고,

정부정책 제언 및 기업노조 실천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현황과 활성화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돋보였으며 본회에서는 임남희부회장, 최순옥사무국장, 정희연연구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97주계학술대회-한 국 유아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개최

지난 11월7일부터 8일 양일간 대전 유성레전드 호텔에서 한국영유아보육학회와 삼성복지재단 주최로 한국영유아 보육학회 '97주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첫째날은 현행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한국 유아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기초강연과 6가지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으며, 둘째날은 1,2분과로 나누어 개인논문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는데 특히 2분과에서는 윤선영선생님과 본회 교

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교사현장 연구소모임이 토대가 된 "보육교사와 보육프로그램-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사례연구"-이 개별 논문으로 채택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보육관련자 및 연구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본회에서는 임남희부회장과 정희연연구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발전을 위한 포럼’ 개최

10월30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기독교교회연합회관 4층 중강당에서 여성단체연합의 주최로 여성복지 발전을 위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복지정책의 수립과 여성복지예산의 확대, 여성개인의 노후 생계를 위한 1인1연금제도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상덕 여성복지위원장의 사회로 1)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2) 국민연금 설문조

사에 나타난 1인1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여성복지 3) 여성복지예산의 현황과 전망 4) 98년 여성정책관련 예산의 현황과 확충방안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본회에서는 남미영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본회 ‘중간간부 훈련’ 개최

본회는 지난 11월15일-16일 양일간에 걸쳐 '97 제2회 중간간부훈련을 충북 영동 여성농민센터에서 지부, 지회의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감마모델 8가지 유형을 통해 진단해본 우리 조직’이라는 주제로 마케팅의 새로운 이해, 감마모델 8가지 유형별 워크샷을 참가자들과 진행하면서 우리 조직을 심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임남희부회장의 강의와 진행은 충실한 준비로 참가자들의 찬사를 받았고,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서로를 알고 조직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연단체 대표자 수련회

11월21일(금)-22일(토) 1박2일 동안 계룡산 동화산장에서 여연단체 대표자수련회가 있었습니다.

98년 총회준비를 위한 정책관련논의와 97년 4차 이사회를 하였고 단체 대표로서의 어려움과 즐거움 등을 나누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남미영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15대 대통령후보 여성정책토론회

‘21세기 여성정책과 삶의 질’을 주제로 11월3일부터 7일까지 대통령 후보 초청 여성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전국 88개 여성단체(본회도 참가)가 준비과정에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최초로 TV 생중계된 여성정책토론회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는 여성정책, 정치현안, 삶의 질 세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KBS-2TV로 오전 10시부터 1박분간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본회 사무국에서는 이인재후보, 이회창후보 토론회 때 참석하였고, 김진숙 남부보육교사회 회장이 ‘현장의 소리’ 시간에 이회창후보에게 보육교사의 양성과정의 문제점 등 보육의 질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이 후보는 공보육이 된다면 해결되리라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10주년 기념행사

11월15일(토) 오후4시부터 인의협 10주년 기념행사가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1부는 기념학술토론회 ‘통일한국의 의료제도’가 있었고 2부에서 창립1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본회에서는 남미영회장이 참석하여 인의협의 10주년 활동을 축하하였습니다.

건강관리교사 모임

건강관리교사 2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기 모임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11월에 다

문 주제는 경기, 외과적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었습니다.

3차 연구모임

현장연구소모임이 11월 말로 그간의 모임을 마감합니다. 11월28일 교사의 직업관을 주제로 마지막 모임을 하고 M.T.를 할 예정입니다.

수원보육교사회준비위

■ 일일주점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400만원이나 벌었대요. 음식도 맛있었구요.

■ 교육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교육내용 정리 마무리를 위하여 11월29-30일 MT를 떠납니다.

■ 12월 19일 수원보육교사 준비위원회 송년회가 근사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봉천보육교사회준비위

■ 인형극 공연이 98년 1월 17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통인형이 200여개 후원이 들어와서 12월중에 공연기

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 생활공동체 공부모임에서는 유아사회지도 공부후제기된 문제나 토론주제에 대한 사례를 수집중입니다.

광주보육교사회준비위

■ 지난 5차 회원의 날은 기수별 모임을 갖으며 앞으로 또래모임을 꾸려 자체적 공부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11월 29일 ‘보육교사를 위한 2기 열린마당’이 기행소모임 한나라잡기, 그림책나라, 풍물소모임 누렁소의 발표로 있을 예정입니다.

남부보육교사회

■ 11월 MT를 토크이러린이집에서 가졌는데 비디오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단합의 시간을 화끈하게 가졌습니다.

■ 12월 둘째주에 97총회가 있습니다.

인천보육교사회

■ 전회원이 공유하는 총회를 위하여 각 단위 평가가 진행중이며 임원들이 회원

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인천보육교사회 제1회 열린마당 '우리의 장단, 우리의 노래'가 11월22일 '밝은터'에서 보육교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수정 선생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열린마당 준비팀의 성실한 준비가 돋보였고, 임수정선생님의 강의는 2시간 내내 교사들을 매료시키는데 충분하였답니다.

서울지역 국공립보육교사회

■ 신입회원이 2명 들어왔습니다. 국공립보육교사회는 모임을 할 때마다 회원이 늘어 모임이 활기차게 진행한다는 기쁜 소식.

■ 12월에는 시설 행사가 많아 월례회의를 쉬기로 하였습니다.

부산보육교사회

■ 11월25일 유아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남희부회장의 강의로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진지한 자세와 유아교육개혁에 관한 '아동중심적 관점'에 모두 공감을 하였습니다.

■ - 총회(98년 1월11일)를 위한 준비가 한참입니다.

전북보육교사회

■ 11월15일 놀이사랑분과 소모임 강습회를 금암교회에서 보육교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놀이 문화조성'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놀이사랑분과에서 1년동안 교육해온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측면에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 출산을 축하합니다.

광주 가람어린이집 배미정선생님이 예쁜 딸을 출산 하였습니다.
(062-952-6349, 944-6106)

■ 결혼을 축하합니다.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의 김경아선생님(062-228-6786)이 12월27일, 서울 새터어린이집 이현경선생님(02-867-8698)이 12월 13일, 서울 봉천어린이집 김숙경선생님

이 12월에 결혼을 합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신부 되세요.

본회 11월 활동일지

11/ 3 집행부 회의

4 여연 조직위원회

5 집행부 감사모델 내부 워크샵

7 건강교사소모임

10 집행부 하루 MT

14 현장연구소모임

15-16 중간간부훈련

18 집행부 회의

정책개발위원회 회의

21 건강교사소모임

21-22 여연이사회

24 집행부 회의

27 이사회

28 현장연구소모임

30 서울지역교사 동반 단합대회

■■■ 편집부에서 ■■■

♣남은 한해도 밝고 힘차게!

1997년도 달력도 달랑 한 장만 남았습니다. 독자님들의 올 한해는 어떠셨는지요?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후회없이 보내야 할텐데, 어디 그게 쉬운가요? 찬찬히 한해를 정리를 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네요.

아마도 남은 한해를 보다 알차게 보내라고 그러는지, 일년중 제일 바쁜 때가 이즈음인가봐요. 한국보육교사회 사무국은 11월 한 달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지나갔답니다.

어찌되었거나...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세제감면 등 희소식을 『우리네 아이들』에서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보육교사들의 성과라고 여겨지는데... 모두들 공감하시죠?

참,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호는 쉽니다.

윤선아님의 '통합교육'이 필자의 사정으로 이번호에 쉽니다. 현장에서 통합보육을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라 무척 기다리고 계셨지만 윤선아님이 활동하시는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가 제일 바쁜 때가 이맘때라 도저히 썬을 내릴 수가 없으시다니 우리가 이해해드려야 겠죠?

보육교사의 애환(?)을 진솔하게 담아주시는 박화명님의 '꿈트'도 아쉽지만 쉽니다.

독자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98년 시년호를 기다려주세요.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원고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교사의 대변지로,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편집부의 헌신과 함께 회원들이 보내주는 각종 아이디어와 원고가 풍부하다면 더 없이 좋은 소식지가 되리라 믿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이디어, 또 교육현장과 생활현장에서의 글을 보내주시면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주체적인 참여만이 『우리네 아이들』의 살 길(!)입니다.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김승하, 이영희님
의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독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특히 본인 아닌 타인명이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메 모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교사는, 우선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 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뗌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좌-을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회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소식지, 중앙의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임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될 수 있고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에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협회 전화연락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화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한국보육정보연구소 TEL: 02-394-1548	
1. 보 육 사 업		2. 보육사업 관련정보	
1. 전국어린이집·놀이방 정보	2.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11. 서울특별시	12.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4. 서울특별시	13. 서울특별시	14. 서울특별시
5. 서울특별시	6. 서울특별시	15. 서울특별시	16. 서울특별시
7. 서울특별시	8. 서울특별시	17. 서울특별시	18. 서울특별시
9. 서울특별시	10. 서울특별시	19. 서울특별시	20. 서울특별시
21. 서울특별시	22. 서울특별시	23. 서울특별시	24. 서울특별시
25. 서울특별시	26. 서울특별시	27. 서울특별시	28. 서울특별시
29. 서울특별시	30. 서울특별시	31. 서울특별시	32. 서울특별시
33. 서울특별시	34. 서울특별시	35. 서울특별시	36. 서울특별시
37. 서울특별시	38. 서울특별시	39. 서울특별시	40. 서울특별시
41. 서울특별시	42. 서울특별시	43. 서울특별시	44. 서울특별시
45. 서울특별시	46. 서울특별시	47. 서울특별시	48. 서울특별시
49. 서울특별시	50. 서울특별시	51. 서울특별시	52. 서울특별시
53. 서울특별시	54. 서울특별시	55. 서울특별시	56. 서울특별시
57. 서울특별시	58. 서울특별시	59. 서울특별시	60. 서울특별시
61. 서울특별시	62. 서울특별시	63. 서울특별시	64. 서울특별시
65. 서울특별시	66. 서울특별시	67. 서울특별시	68. 서울특별시
69. 서울특별시	70. 서울특별시	71. 서울특별시	72. 서울특별시
73. 서울특별시	74. 서울특별시	75. 서울특별시	76. 서울특별시
77. 서울특별시	78. 서울특별시	79. 서울특별시	80. 서울특별시
81. 서울특별시	82. 서울특별시	83. 서울특별시	84. 서울특별시
85. 서울특별시	86. 서울특별시	87. 서울특별시	88. 서울특별시
89. 서울특별시	90. 서울특별시	91. 서울특별시	92. 서울특별시
93. 서울특별시	94. 서울특별시	95. 서울특별시	96. 서울특별시
97. 서울특별시	98. 서울특별시	99. 서울특별시	100. 서울특별시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예능입니다.